

동국대학교 2017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GUIDE BOOK



 인문계 논술 가이드

  우리대학소개



 2017학년도 우리대학 논술우수자 전형 안내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The Way to the top

정상으로 가는 길은 동국에서 시작된다



04 꿈으로 향하는 **지름길**

나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동국의 교육환경



05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는 **배움길**

배움의 지평을 넓혀가는 동국의 특별한 교양교육 과정,
'다르마 칼리지'



06 취업 고수로 나아가는 **넓은 길**

입학부터 취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리로
취업의 길을 넓혀주는 동국의 '취업 지원제도'



07 젊은 창업가로 성장하는 **하늘길**

예비 창업가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동국의
'창업 지원제도'



08 정상으로 발돋움하는 **오름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동국의 유망 학과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동국



동국대학교는 지난 세월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명문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동국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동국의 혁신적인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110

건학 110주년

7

2015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전국 7위

A

2015 대학구조
개혁평가
A등급 획득

BEST

2015 동아일보 대학평가
최우수 청년드림대학 선정
(취업-창업 지원 역량 평가)

3

2014 국가고객
만족도(NCSI)
사립대 3위

6

역대 국회의원
배출 6위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동국의 교육

- 2014 전국 경영대 평가 11위
- 2015 조선일보-QS 세계 대학평가 국내 14위
- 2015 교육부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서울 / 경주캠퍼스 동시 선정(전국 유일)



21세기형 인재를 키우는 실용학풍

- 2015 5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선정
- 2015 동아일보 대학평가 최우수 청년드림대학
(취업-창업 지원 역량 평가) 선정



실력으로 인정받는 동국인들

- 2014 행정고시 전국 8위
- 2015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전국 7위
- 2015 신춘문에 당선자 9명 배출
- 2015 공인회계사(CPA) 합격자 배출 12위



튼튼한 대학, 동국

- 2014 사립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4위
(대학알리미 발표, 한국경제신문)
- 2014 사립대 기부금 순위 5위 - 236억 원
(대학알리미 발표, 한국경제신문)

동국과 함께 하는 내 꿈을 향한 여정

동국대학교는 학생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장학, 취업·창업 관련 다양한 학생 지원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대학, 동국대학교입니다.



무궁무진한 배움의 기회 학사제도

•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 **‘다르마 칼리지’**

고전 100권을 읽는 ‘세계명작세미나’와 같이 인문, 사회, 자연, 기술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게 된다.

• 더 큰 세계로 향하는 징검다리 **‘글로벌 프로그램’**

전 세계 48개국 283개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동국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 각국 정부기관 및 세계 수준의 연구소와 대학을 견학하는 ‘동국 해외학술탐방장학’ 등 더 큰 세상에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융합적 사고를 키운다 **‘복수전공’**

제2, 제3의 전공을 배우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1학년 2학기 말부터 신청 가능하며 학과별로 정원을 최대 200%까지 선발한다. 자신의 전공 이외의 다양한 전공 학위를 취득해 사회진출에 유리하다.

• 나의 첫 터닝포인트 **‘전과(전공변경)제’**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전공을 변경할 기회를 세 번이나 갖는다(단, 전과 확정은 1회). 경찰행정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로 전과가 가능하며, 정원의 50%까지 선발한다. 전과(전공변경)제를 활용하여 새로운 진로의 문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



모든 동국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 장학제도

• 사립대 장학금 지급율 4위

동국대학교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239만 2천원(대학정보공시 2013년 자료)에 달하며, 2014년 사립대 장학금 지급율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탄탄한 장학제도를 갖추고 있다.

• 새내기 동국인을 위한 **‘신입생 장학제도’**

동국의 놀라운 장학 혜택은 신입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다. 대표적인 장학제도로는 ‘입학 최우수장학’, ‘BT특성화장학’, ‘문화인육성장학’을 들 수 있다.



동국인의 미래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 좁은 취업 관문도 뚫게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 스스로 취업 역량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드림패스’와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로드맵’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이끈다.

• 차세대 벤처 기업가를 양성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2011년부터 5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동국에서는 다양한 강좌와 캠프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동국 창업 리그’와 같은 다채로운 창업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폭넓은 지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배움길 다르마 칼리지

Dharma College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세계명작세미나

「존재와 역사」, 「경제와 사회」, 「자연과 기술」, 「문화와 예술」, 「지혜와 자비」 등 5개 영역에 해당하는 총 100권의 고전을 4학기에 걸쳐 독파하는 강좌이다. 일방적인 강독식 강좌가 아닌, 교수와 함께 토론하며 고전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폭넓은 사고를 갖추게 된다.



원어민과 함께 익히는 실용 회화 영어교육

원어민 교원 100%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강의로, 글쓰기와 토론, 발표 중심의 수업을 통해 말문이 트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교과서 속 영어가 아닌, 진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어 졸업 이후 직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자기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글쓰기교육

보고서, 칼럼, 에세이 등 다양한 글쓰기 연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글을 쓰는 습관과 능력을 점검하는 '글쓰기 클리닉'으로 전문 실력을 키울 수 있다.

Tip

키워드로 보는 '다르마 칼리지' 주요 특징

Communication

세계명작세미나는 교수 또는 다른 학생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고전에 갖든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



100권

세계명작세미나의 고전 100권 읽기에 도전해보자. 동국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당신은 지성인으로 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100%

100% 원어민 교원이 지도하므로 원어민의 정확한 억양과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취업 성공을 이끄는 넓은 길 취업 지원제도

Career



꾸준한 역량개발을 돕는 드림패스

드림패스(Dream PATH)란 '꿈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동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고안한 학생 역량개발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꿈과 역량을 비교하고 진단하며, 재학기간 동안 진로와 취업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한 비교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본인의 역량 수준을 고급 역량 기준(상위 20%) 그룹 및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과 비교할 수 있어 역량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다.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입학부터 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준비도 점검을 시작으로 취업 전략 수립을 돕는 특강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노하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빼곡하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취업 스터디 모임인 '특별공채대비반'을 수료하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다. 미취업 졸업생들까지 컨설팅을 진행하므로 동국에서는 누구나 취업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Tip

취업률 80%에 도전한다, 특별공채대비반

가 취업 준비를 시작한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특별공채대비반' 덕분입니다. 일명 특공대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관심 직종이 동일한 학생들과 취업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고 인사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제공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대비까지 집중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어 특공대를 수료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무려 80%에 달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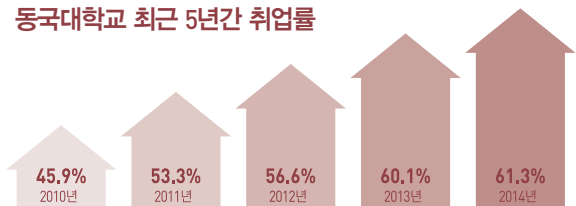


박지수
현대자동차 인사실(지리교육 II)

국내 주요 기업 동국인 입사 현황(2013년 상위 10개 기업)

- 삼성그룹 136명 • LG그룹 116명 • 롯데그룹 44명
- CJ그룹 28명 • 현대자동차그룹 25명 • NH금융그룹 24명
- 현대그룹 22명 • IBK금융그룹 20명 • SK그룹 19명
- 신한금융그룹 11명

동국대학교 최근 5년간 취업률



젊은 창업가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하늘길 창업 지원제도

Start-up



체험으로 습득하는 기업가의 자질 엔턴십

엔턴십이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인턴십(Internship)의 합성어로,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관련 분야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자신의 창업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기업가 마인드를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해외 창업의 꿈을 키우는 콜럼버스 인턴십

해외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약 4주간 해외 유수 기관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적인 안목과 실무 능력을 기르며 예비 글로벌 창업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을 다질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창업 선도 대학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2015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일반형 창업 선도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금액인 정부지원금 25억원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5 서울창업지원센터 BI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5년 연속 획득하였다.

Tip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상윤 / 장창원 / 이현하 / 공동대표 김정우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게 해준 창업동아리

우리 아텍랩은 2013년 동국의 창업동아리로 출발해 불과 2년 만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미디어 아트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창업 교육을 비롯해 창업 자금과 사무실 지원, 창업 전문가가 제공하는 멘토링까지,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동국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우리대학으로 오세요. 지금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창업의 꿈을 머지않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경찰 행정학부

“최초로 시작해 최고의 명문으로 성장하다”

반세기 전인 1963년, 동국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경찰행정학과를 설립했다. 사회적 요구에 앞서 미래를 설계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지금까지 1,8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이 분야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16년 동국대는 사회안전분야의 다양한 안전(Safety & Security) 수요의 확대와 융복합콘텐츠(Convergence Content) 활성화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단과대학인 경찰사법대학으로 확대 개편하여 2017학년도부터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신입생을 모집한다.

융·복합 전문지식과 지도자적 인격을 갖춘 참 인재를 키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부는 경찰학·산업보안·범죄과학·교정학 등 4개의 세부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학 및 교정학 전공은 형사사법기관 중견간부 양성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보안 및 범죄과학 전공은 경찰학 및 범죄학을 기반으로 통계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의학 및 심리학 등을 아우르는 사회안전분야(테러, 산업보안, 사이버보안 등) 융복합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학생들은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핵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공공안전 및 보안 분야 우수인력 및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적인 인재로 발돋움하게 된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 **막강 동문 파워와 인적 네트워크** _경찰, 법무, 국정원, 청와대, 학계 등 사회안전분야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1,800여 인재들로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 **경찰행정학부 총동문회 운영 기숙사 입실 혜택** _경찰행정학부 동문회는 신림학사(원룸 20여실)를 마련하여, 국가고등고시 및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수험생활을 적극 돕고 있다.
- **다양하고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 _경찰행정학부 총동문회, 에스원 등 많은 외부후원 장학금을 마련하여 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졸업 후 진출 분야

-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감사원, 청와대경호실 등 중견공무원
- 사법고시·행정고시를 통한 정부기관 중견공무원 • 로스쿨 진학을 통한 법조인 • 대학원 진학을 통한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산업보안서비스 공급·수요기업 중견관리자(산업보안컨설턴트, 산업보안관리자 등)
- 범죄 데이터사이언티스트(경찰청, 시스템컨설팅업체, 빅데이터업체 등)

Tip

6

역대 경찰청장 동국대 6명 배출

85

역대 지방경찰청장 85명 배출

최초

대한민국 최초 경찰행정학과

국어국문 문예창작 학부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동국 문학”

오늘날 자타공인 동국대학교의 대표적인 학부로 자리매김한 국어국문·문예창작전공의 모태는 1940년대에 출범한 국어국문학과이다. 지난 세월 수많은 학자와 문필가, 교원을 배출하며 한국 사회의 지성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폭넓은 기여를 해왔다. 2013년에는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로 통합해 이론과 실기, 연구와 창작을 결합한 미래 지향적 학문편제를 새로이 구축했다.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을 두루 접하는 교육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는 전공을 나누지 않고 학부로 통합 선발한다. 입학 후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 두 전공 중 하나의 졸업 학점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해당전공 졸업으로, 두 전공 모두 졸업 학점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복수전공 졸업으로 인정받는다.

한국 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잇다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는 한국의 언어와 문학을 연구해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탁월한 창작 능력을 갖춘 작가를 양성해 새로운 문학 콘텐츠를 생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학술, 교육, 문필 활동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졸업 후 진출 분야

국어국문학 전공

- 작가, 출판 편집자, 광고 카피라이터, 신문 및 방송 언론기자, 웹 기획자
- 문화콘텐츠 전문가, 문화연구자, 문화평론가
- 전통문화 전문가, 학예사(큐레이터), 전통문화 행사 기획자
- 국어교사 또는 연구자로 성장

문예창작학 전공

- 시인, 소설가, 희곡 및 시나리오 작가, 동화작가
-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만화 작가
- 기업 홍보 또는 광고나 경영 분야에서의 스토리텔링 작업

Tip

9

2015년 동국대 신춘문예 당선자 9명 배출

동국문학

시인 한용운(1회 졸업생), 서정주(1936년 졸업), 조지훈(1941년 졸업), 신경림(1960년 졸업)과 소설가 조정래(1966년 졸업) 등 동국 문학은 한국 문학의 축소판과 다름없다.



경영학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 경제의 내일을 연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던 1959년, 동국대학교는 선진 학문 경영학전공의 새 문을 열었다. 이후 동국이 길러낸 인재들은 각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21세기를 맞은 오늘날에는 우수한 교육과정과 실력 있는 교수진, 세계 유명 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선도적인 경영대학’이라는 비전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접하는 실용적인 교육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는 함께 굴러가는 양 바퀴와도 같다. 동국의 경영학은 학문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최신의 이론을 균형 있게 교육하는 한편, 향후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 경영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 실무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글로벌 경영 인재를 키우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 **교환학생 프로그램**
세계적 명문 대학인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과정 수업을 이수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 **복수 학위제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과 협정을 맺은 세계 각국의 교류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 **경영대 English Zone**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의 자매 대학에서 온 외국인 교환학생 튜터와 1:1로 대화하며 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졸업 후 진출 분야

- 종합상사, 금융·증권회사, 정보기술회사, 경영컨설팅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체_인사, 마케팅, 재무 등 업무 담당
- 기업체 경영연구소
- 경영 컨설턴트

Tip

1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14 전국 경영대 평가'에서 11위 달성

AACSB

전 세계 경영대학 중 상위 5%에게만 허락되는
최고 수준의 경영교육 인증(AACSB Accreditation) 획득



융합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

“한국 과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동국대학교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는 2013년에 신설된 신생 학과이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모든 재료의 개발과 이에 대한 응용을 연구한다. 특히 차세대 에너지 재료와 첨단 전자재료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이 그 어느 학과보다 높다.

유능한 공학도를 키워내는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신소재인 '나노 소재'와 차세대 에너지원을 탐구하는 '에너지 소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회로 소재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쓰이는 '전자/정보 소재'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다양한 기초이론 교육과 실험·실습 등 입체적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통해 실력 있는 공학도를 양성한다.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만의 차별화된 공학 교육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년별 맞춤 교육

저학년 때에는 전공기초 지식과 교양으로 학문의 바탕을 확고히 다지고, 고학년 시기에는 전자/정보 소재, 환경/에너지 소재 등 전공 선택 과목을 적절히 이수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도록 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교육

올바른 직업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공학도로 거듭나게 된다.

졸업 후 진출 분야

- 제철,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의 소재산업체 /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KCC 등의 전기·전자 산업체 / 기계, 자동차, 조선 등 폭넓은 분야로 진출 가능
- 국·공립 및 기업 연구소, 학교 등 연구 개발 분야 전문직
- 기술고시나 행정고시를 통해 정부 부처의 관료로 진출 /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로 성장

Tip

Excellent faculty

- 노용영 교수, '2014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 미국 전자공학회 논문상 수상 / 고성능 유기반도체 개발 성공
- 김기강 교수, 국내 최초 꿈의 신소재 그래핀 반도체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
- 강용묵·한영규 교수, 리튬-공기 전지성능향상을 위한 획기적촉매 개발 성공

83.4%

전국 51개 재료공학 관련 학과의 취업률(최근 5년간)은 학부 졸업생 83.4%, 대학원 졸업생 94.8%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화공생물 공학과

“미래 지향적 공학교육을 실현한다”

오늘날 화공생물공학은 기존의 정유, 석유 화학분야로부터 의학, 전자재료, 환경,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21세기 산업 현장을 주도해 나갈 대표적인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국 화공생물공학과는 화공생물공학의 기초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와 응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교육과정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에서는 1학년 때 수학 및 기초 과학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 화학공학, 생물공학, 재료공학 등의 수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공의 기초를 다진다. 고학년 시기에는 공정설계, 신소재, 생물공학, 감성소재 및 공정트랙, 복수전공트랙 등 향후 진출 분야에 따라 맞춤으로 설계된 수업을 이수하며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갖춘 공학도의 길을 밟아가게 된다.

공학교육인증제(ABEEK)가 키워내는 최고의 화공 엔지니어

동국 화공생물공학과 학생은 누구나 지난 2001년부터 ‘공학교육인증평가’에서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 교과목은 전문 교양, MSC(공학수학, 일반화학 등), 전공 필수, 전공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과과정을 잘 알아본 후 수강계획을 세워야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삼성그룹과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BEEK 인증’ 정회원국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으므로 해외 취업에도 유리하다.

졸업 후 진출 분야

공정기술 분야

- 설계공학 : 화공생물공학공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공정 혹은 장치를 설계
- 기획설계공학 :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및 관리
- 생산관리 : 필요로 하는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들의 관리
- 플랜트 엔지니어링 : 공정의 문제 해결과 개선, 수정을 통한 기술적인 지원
- 연구개발 : 연구실에서 개발된 새로운 연구들의 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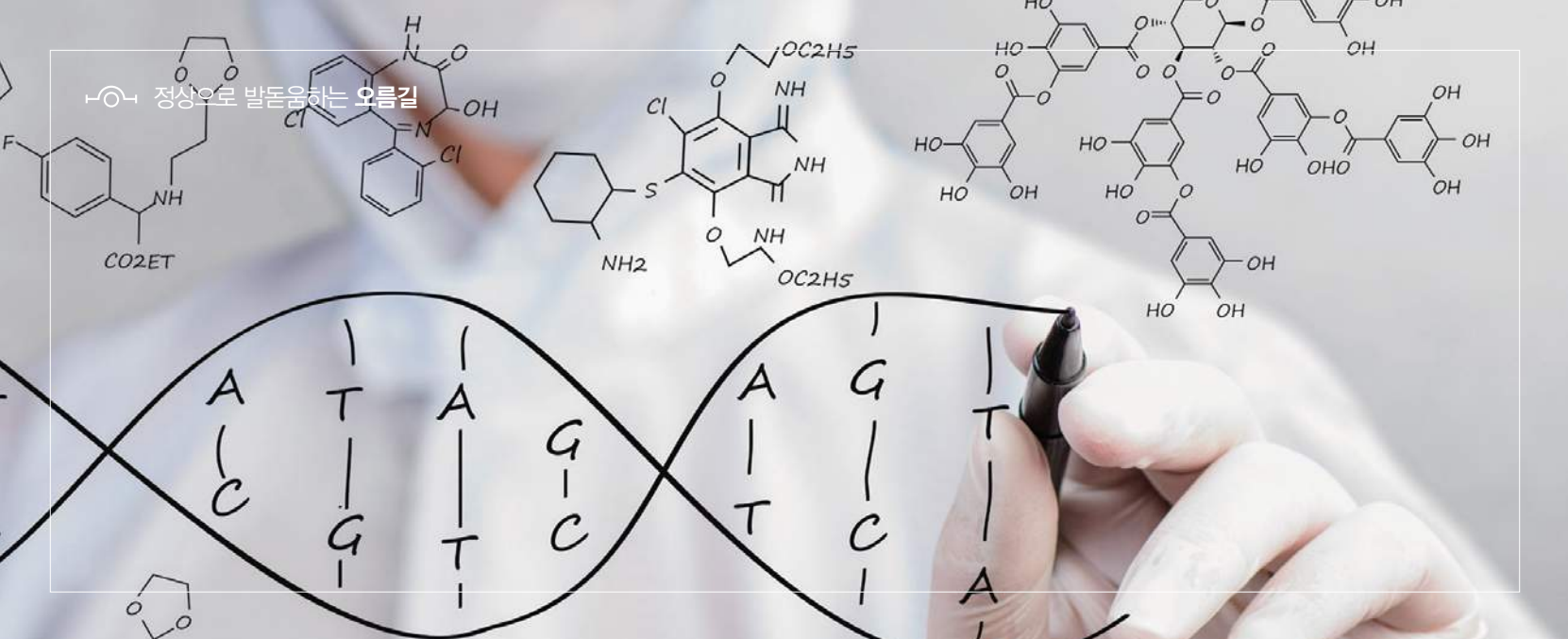
일반관리 분야

- 재정, 경영 : 공정산업의 경제적 분석 및 경영관련 불확실 요소들의 이해와 분석
- 기술영업, 기획 : 공정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기술적 지원 및 신규사업 진출방향 모색

Tip

100

화공생물공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화공생물공학과 동문회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학기당 4명의 장학생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의생명 공학과

“창의적 융합 인재의 요람이 된다”

과학과 기술의 도입으로 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며 의학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2008년 신설된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생명공학’, ‘의공학’, ‘나노바이오’를 포괄하는 융합과학을 교육한다. 바이오와 연계한 생물학, 나노과학, 응용의생명과학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 분야를 익혀 새로운 영역에서 신생·융합기술 발전을 견인할 21세기 인재를 길러낸다.

전문가로 성장하는 길을 알려주는 세분화된 교육

의생명공학도에게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초 지식과 각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 응용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동국 의생명공학과는 바이오와 연계한 생명과학 및 나노바이오 분야인 ‘MNBT(Medical Nanobio Technology)’, 의용전자 및 의용메카트로닉스 분야인 ‘MBE(Medical Bio Engineering)’, 세포치료 기술과 생체재료 기술, 치료용 의료기기를 연구하는 ‘TERM(Tissue Engineering & Regenerative Medicine)’ 등 총 3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남다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영어강의 2학년 때부터 35% 이상의 전공 교과목을 영어 강의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킨다.

현장실습 의생명공학 분야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원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실무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진출 분야

- 생체재료와 조직재생 연구 및 개발 병원의 기초의학 연구실, 생명공학기업 또는 조직은행 등의 인체조직을 가공하는 연구소, 식약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 단백질 화학연구 및 개발 정부 출연 연구소, 정부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식품·화학 제품제조 업체
- 의료기기 연구 및 개발 병원과 의료기기 연구소, 의료기기 시험평가기관, 보건 의료 관련 공공기관
- 의약품 연구 및 개발 의약품 제조업체, 생명기술회사

Tip

5

지난 2011년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인 지멘스와 협약을 맺고 ‘지멘스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매 학기 성적 우수자 5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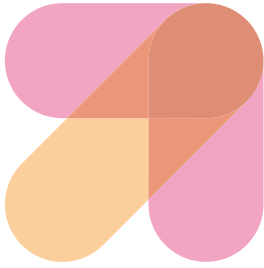
Excellent faculty

- 박정국 교수, 과학기술진흥유공자 3등급 웅비장 선정(2009)
- 김소연 교수, 환경부 3년 연속 우수 연구 30선 선정
- 이태용 교수, ‘10th Asia Pacific Conference on Diabetic Limb Problems, Singapore’에서 ‘젊은 과학자상’ 수상(2013)
- 권영은 교수, 대한 독성 유전체학회 ‘우수 학술상’ 수상(2012)

A message to prospective students

 입학처장 메시지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이한 동국대학교는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리더들을 배출해 왔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젊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국대학교는 우리 대학과 함께 세계로 뻗어갈 우수 인재 선발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대학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단일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논술전형은 꼭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춘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대학 논술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풀어내고 있어 충실하게 학교 수업에 임한 학생들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 고교교육 중심의 평가라는 절대적 지표를 세워두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암기위주의 표면적 평가가 아닌, 대학교육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성적 사고력과 종합적 판단력 평가를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첫째, 선행학습에 의한 불균형한 교육환경을 지양하고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다뤄지지 않은 어려운 개념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논술 사교육을 통해 단기간 내에 얻은 특정 지문이나 공식을 암기한 지식은 사용될 수 없도록 판단의 폭을 넓혀 두었습니다.** 결국 고교 교육과정의 울타리 내에서 길러낸 통합적 사고능력을 위주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 내에서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응용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논술전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수학능력 즉, 대학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학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본 논술 가이드북의 발간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우리 대학 논술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갖게 되어, 동국대학교로 가는 길을 다지는 탄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남산자락의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2016년 2월
동국대학교 입학처장 **강삼모**

Contents

- 17** 1.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 19** 2. 2014~2016학년도 논술 전형 결과 분석
- 27** 3. 2014~201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 1) 논술 전형 특징
 - 2) 논술 전형 유의사항
 - 3) 논술 문제 및 해설
 - 2016학년도 논술고사(인문 I) 문제 및 해설
 - 2016학년도 논술고사(인문 II) 문제 및 해설
 - 2015학년도 논술고사(인문 I) 문제 및 해설
 - 2015학년도 논술고사(인문 II) 문제 및 해설
 - 2014학년도 논술고사(인문 I) 문제 및 해설
 - 2014학년도 논술고사(인문 II) 문제 및 해설
- 86** 4. 동국대 논술, 이렇게 대비하라!
 - 동국대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교사 원치승
- 89** 5. 논술전형 Q & A
- 91** 6. 논술고사 모의 답안지(인문)



1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 안내

1. 지원자격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2.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합격배수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논술	수능최저 학력기준
일괄	1배수	40	60	적용

(2) 전형요소별 최고/기본점수

전형요소	최고점수	기본점수	전형요소	최고점수	기본점수
학생부(교과)	400	240	논술	600	420

3. 학생부 반영 교과목 반영교과 중 상위 10과목(이수단위 미적용)

구분	반영교과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4. 수능최저학력기준

- 해당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한국사 영역의 성적이 모두 존재하고,
※ (사회 또는 과학)탐구 영역은 2개 과목 중 상위 1개만 반영
※ 직업탐구 응시자도 지원은 가능하나 등급합 산정 시 제외
- 아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인문계열/영화영상학과	국어 / 수학(가형 또는 나형) / 영어 / (사회 또는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경찰행정학부/경영학부	국어 / 수학(가형 또는 나형) / 영어 중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자연계열	국어 / 수학 가형 / 영어 /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



5. 논술고사 출제방식

형 태	특정 교과영역의 단순 암기위주식(주입식)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 주장, 사회·자연 현상 등에 대한 이해력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논술
시간 및 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 100분 • 문항수 : 3개 • 전체 답안 분량 : 최대 1,500자 이내(자연계는 50줄)
문항구성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① 문항 2~3개는 250자~350자 정도의 답안분량 ② 문항 1개는 550자~700자 정도의 답안 분량으로 구성
출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열 :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도록 문제 출제(영어지문 없음) • 자연계열 : 수리, 과학의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1개 출제 가능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답안 작성 시 흑색 볼펜 또는 연필 사용가능 • 출제된 문항 일부만 선택하여 작성하면 안 되고, 모든 문항을 풀어야 함 • 지정된 답안 분량(범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유의 • 답안은 제공된 답안지 1장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내용이나 답안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표시 금지 • 영화영상학과는 인문계열 논술문제를 응시함

6. 평가기준 및 배점

- (1) **평가기준** 문제와 주제에 대한 이해력, 문항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능력(문제해결력), 지식의 풍부함과 사고의 균형감각, 분석력과 추리력 등 종합적 사고능력, 언어 표현의 정확성(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산출방법** 각 문항별 배점의 합은 100점으로 하고, 문항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반영총점(600점)으로 환산
산출수식 : $(\Sigma \text{문항별점수}) \div \text{만점}(100\text{점}) \times \text{반영총점}(600\text{점})$

7. 2017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인문계)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 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10	사회과학	경제학과	20
	영어영문학부	10		국제통상학부	20
	철학과	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0
	사학과	5		광고홍보학과	10
법 과	법학과	35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30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10	경 영	경영학부	80
	행정학전공	10	예 술	영화영상학과	5
(인문)모집인원 계			260		

※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칙개정, 구조조정에 따라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

2014~2016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경쟁률

(1) 2014학년도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질경쟁률 *
인문/사회/예체능	237	9,491	40.00	10.06
경영	35	1,371	39.17	9.91
경찰행정	20	826	41.30	13.50
자연	230	5,204	22.63	6.40
계	522	16,892	32.36	8.57

* 실질경쟁률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지원자의 경쟁률

(2) 2015학년도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질경쟁률
인문/사회	145	7,796	53.77	18.05
경영	90	2,277	25.30	6.02
경찰행정	30	909	30.30	10.47
자연	234	4,797	20.50	6.18
계	499	15,779	31.62	9.86

(3) 2016학년도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실질경쟁률
인문/사회/예체능	150	7,493	49.95	14.96
경영	90	2,365	26.28	5.42
경찰행정	30	1,073	35.77	10.93
자연	229	4,869	21.26	6.66
계	499	15,800	31.66	9.19

-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경쟁률은 0.04:1 차이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의 상승으로, 실질 경쟁률(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경영학부는 그 외 인문계열 학과와 비교할 때, 수능최저학력기준만 충족한다면 실질경쟁률 측면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음
- 자연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 경쟁률과 실질경쟁률 측면에서 낮게 형성되고 있음



• 계열별 경쟁률 상위학과 5개 학과 (2016학년도)

계열	학과 및 경쟁률		
인문	사학과 67.4 : 1 광고홍보학과 59.1 : 1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63.9 : 1 철학과 53.8 :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63.9 : 1
자연	화공생물공학과 31.7 : 1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2.6 : 1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24.5 : 1 컴퓨터공학전공 21.85 : 1	전자전기공학부 24.22 : 1

• 계열별 경쟁률 하위학과 5개 학과 (2016학년도)

계열	학과 및 경쟁률		
인문	경영학부 26.28 : 1 경제학과 42.65 : 1	경찰행정학과 35.77 : 1 법학과 43.29 : 1	정치외교학전공 42.2 : 1
자연	물리·반도체과학부 15.9 : 1 생명과학과 18.22 : 1	수학과 16.2 : 1 건축공학부 18.3 : 1	건설환경공학과 18.2 : 1

• 계열별 실질경쟁률 상위학과 5개 학과 (2016학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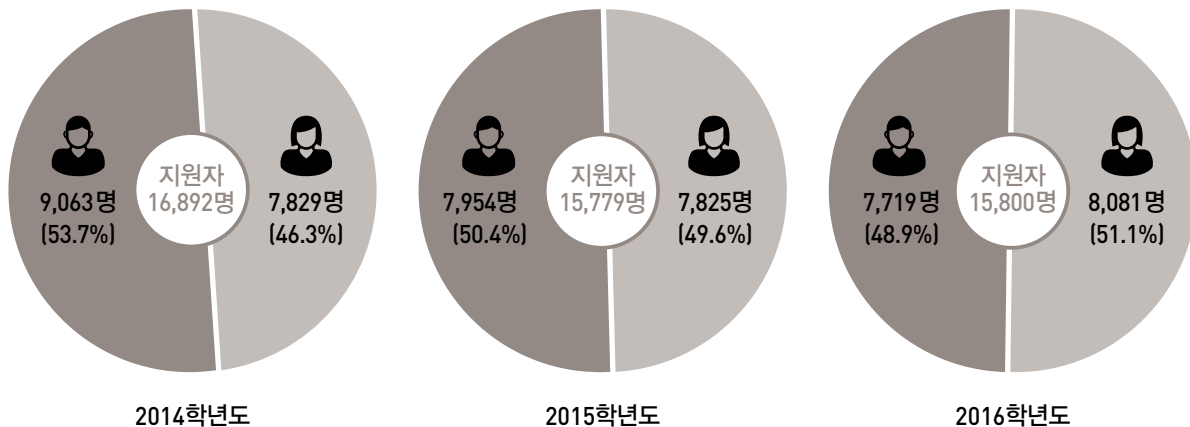
계열	학과 및 경쟁률		
인문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21.5 :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9.5 : 1	광고홍보학과 20.0 : 1 사학과 18.6 : 1	영어영문학부 18.3 : 1
자연	화공생물공학과 13.6 : 1 통계학과 8.0 : 1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8.4 : 1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7.8 : 1	화학과 8.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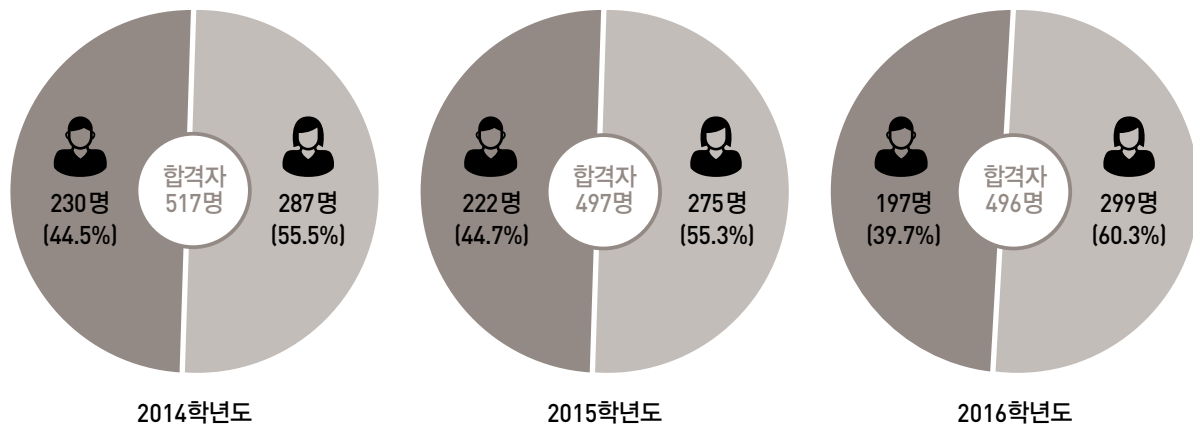
• 계열별 실질경쟁률 하위학과 5개 학과 (2016학년도)

계열	학과 및 경쟁률		
인문	경영학부 5.42 : 1 정치외교학전공 12.1 : 1	경찰행정학과 10.93 : 1 경제학과 12.45 : 1	법학과 12.09 : 1
자연	바이오환경과학과 4.11 : 1 건설환경공학과 4.4 : 1	건축공학부 4.3 : 1 물리·반도체과학부 4.6 : 1	식품생명공학과 4.33 : 1

2. 지원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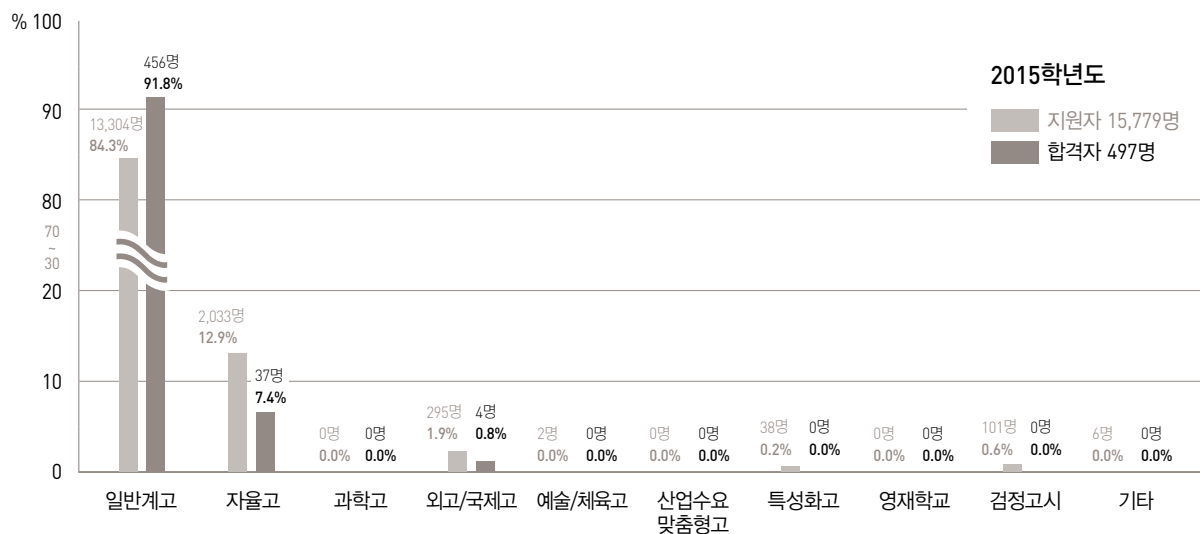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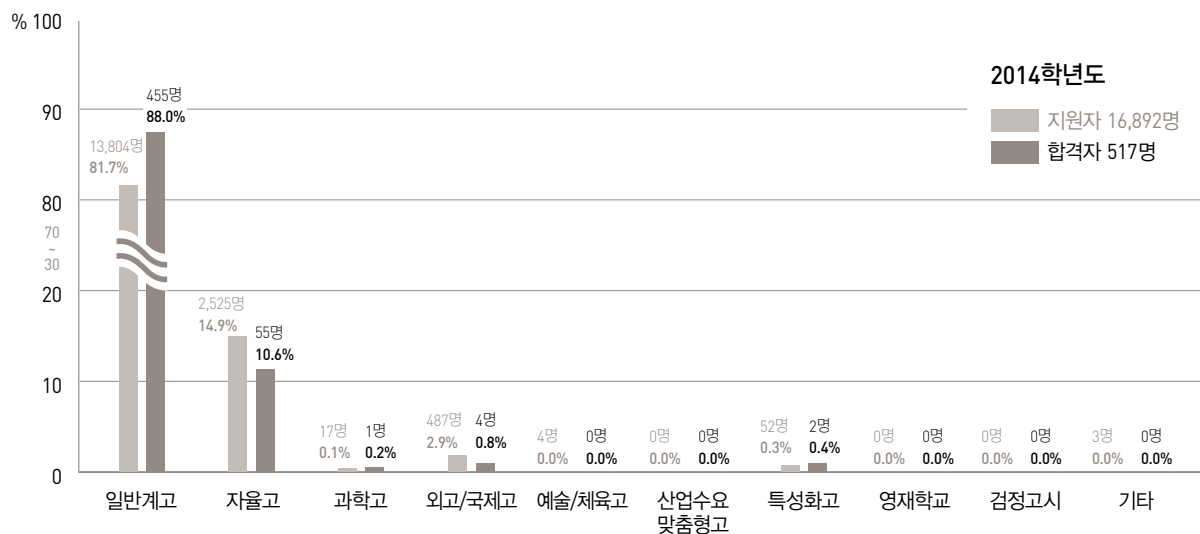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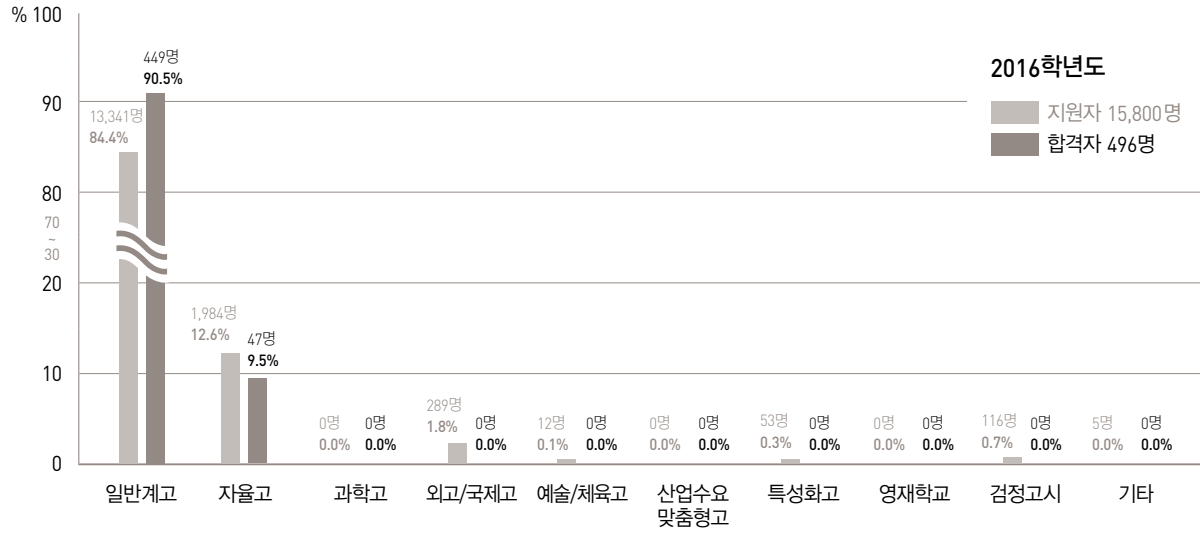




-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남학생의 지원율이 1.5% 감소, 남학생의 합격률은 4.2% 하락함
-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여학생의 합격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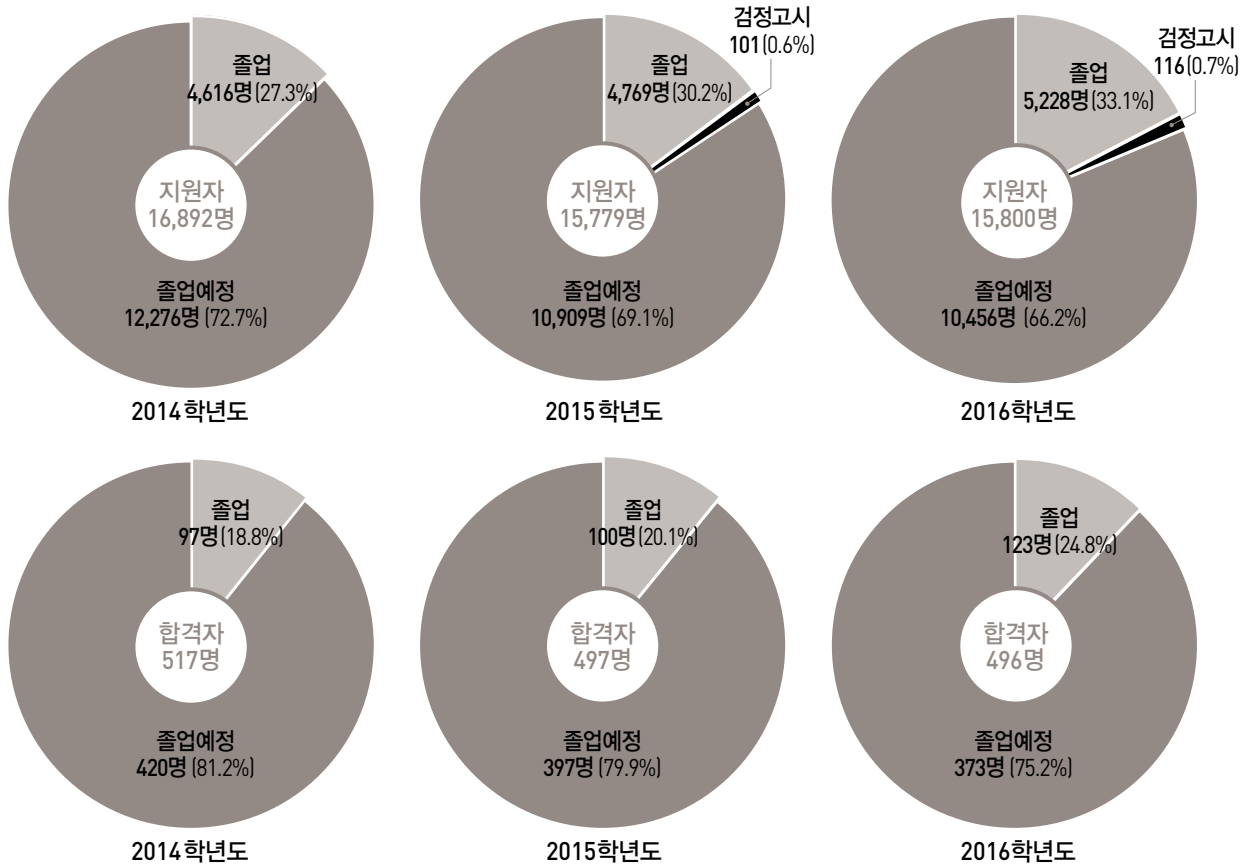
(2) 고교유형별





- 2015, 2016 학년도 고교유형별 지원율과 합격률은 유사하게 나타남
- 다만,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외고/국제고 학생의 지원율은 0.1% 하락하였으나, 합격률은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자율고의 합격률이 전년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 졸업시기별



- 2015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졸업자의 지원율과 합격률이 전년대비 각각 2.9%, 4.7% 상승하였음
- 최근 쉬운 수능 경향이 재수생 증가 현상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음

3. 논술 성적

■ 고사유형별

(1) 2014학년도

구분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 1	89.1	8 ~ 97	93.2	91 ~ 97
인문 2	89.0	22 ~ 97	92.7	87 ~ 97
자연	81.0	8 ~ 97	92.1	88 ~ 97

(2) 2015학년도

구분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 1	86.1	70 ~ 98	90.1	87 ~ 95
인문 2	84.8	70 ~ 98	90.3	86 ~ 97
자연	84.0	70 ~ 97	88.9	83 ~ 97

(3) 2016학년도

구분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 1	84.8	70 ~ 98	88.8	85 ~ 96
인문 2	83.9	70 ~ 97	89.5	86 ~ 97
자연	84.1	70 ~ 98	90.8	82 ~ 98

- 위 표는 최근 3년 논술고사 시간(인문계 오전, 인문계 오후, 자연계)에 따른 고사유형별 논술성적 자료를 나타냄
- 2016학년도는 전반적으로 합격자 논술성적 범위(최저-최고 범위)가 2015학년도 대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16학년도 자연계열은 전체 논술성적 평균보다 약 7점 정도 낮은 지원자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남

■ 단과대학별

(1) 2014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88.8	22 ~ 97	93.1	90 ~ 97
이과	81.4	8 ~ 97	92.2	88 ~ 97
법과	89.5	27 ~ 95	92.8	91 ~ 95
사회과학	89.5	8 ~ 97	93.4	91 ~ 97
사회과학(경찰행정)	88.7	8 ~ 95	93.2	92 ~ 95
경영	88.0	30 ~ 95	92.5	91 ~ 95
바이오시스템	81.6	13 ~ 97	92.4	89 ~ 97
공과	80.5	13 ~ 97	91.9	88 ~ 97
사범	88.2	14 ~ 96	92.5	87 ~ 96
예술	88.5	50 ~ 95	92.1	91 ~ 94

**(2) 2015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86.4	70 ~ 98	91.4	88 ~ 95
이과	84.0	70 ~ 97	89.2	83 ~ 97
법과	85.3	70 ~ 97	91.0	88 ~ 97
사회과학	84.7	70 ~ 98	90.2	86 ~ 95
사회과학(경찰행정)	84.8	70 ~ 94	89.8	88 ~ 94
경영	85.8	70 ~ 96	89.7	87 ~ 94
바이오시스템	83.9	73 ~ 94	88.6	85 ~ 92
공과	84.0	70 ~ 95	88.9	84 ~ 94

(3) 2016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논술성적		합격자 논술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85.5	70 ~ 98	91.2	87 ~ 96
이과	85.1	72 ~ 98	92.5	86 ~ 98
법과	84.9	70 ~ 96	90.6	87 ~ 94
사회과학	83.9	70 ~ 97	89.7	86 ~ 97
사회과학(경찰행정)	82.6	70 ~ 94	87.7	86 ~ 91
경영	84.2	70 ~ 94	87.8	85 ~ 94
바이오시스템	84.1	71 ~ 96	89.4	82 ~ 95
공과	83.9	70 ~ 97	90.7	84 ~ 97
예술	84.9	77 ~ 93	91.1	90 ~ 93

- 2016학년도 합격자의 단과대학별 논술성적 평균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7.7 ~ 92.5 점수 사이에 형성되고 있음
- 2016학년도 합격자는 지원자 평균점수보다 3.6 ~ 7.4점 더 높은 경우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4. 학생부 성적

■ 고사유형별

(1) 2014학년도

구분	지원자 학생부 성적		합격자 학생부 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 1	3.93	1.33 ~ 8.77	2.67	1.33 ~ 4.23
인문 2	4.02	1.25 ~ 8.64	2.76	1.50 ~ 4.56
자연	4.23	1.42 ~ 8.50	3.30	1.42 ~ 5.58

(2) 2015학년도

구분	지원자 학생부 성적		합격자 학생부 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 1	3.37	1.00 ~ 8.17	2.45	1.25 ~ 4.17
인문 2	3.38	1.00 ~ 7.92	2.41	1.00 ~ 4.50
자연	3.74	1.17 ~ 7.75	2.86	1.33 ~ 5.25

(3) 2016학년도

구분	지원자 학생부 성적		합격자 학생부 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인문 1	3.47	1.00 ~ 8.42	2.51	1.08 ~ 4.58
인문 2	3.44	1.00 ~ 8.17	2.42	1.00 ~ 4.25
자연	3.78	1.33 ~ 7.67	3.00	1.58 ~ 5.83

- 우리대학 학생부 반영등급이 4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므로, 2016학년도 인문계열 합격자의 성적 범위를 감안할 때 4.58 등급 정도까지 합격 가능성을 볼 수 있음
- 2016학년도 자연계열은 경쟁률과 실질경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 최저성적이 5.83 등급까지 낮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단과대학별

(1) 2014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학생부 성적		합격자 학생부 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4.04	1.50 ~ 8.64	2.75	1.96 ~ 4.56
이과	4.07	1.42 ~ 8.00	3.23	1.42 ~ 4.44
법과	4.03	1.64 ~ 8.48	2.92	1.73 ~ 4.32
사회과학	3.95	1.41 ~ 8.28	2.68	1.58 ~ 4.23
사회과학(경찰행정)	3.90	1.33 ~ 8.42	2.32	1.33 ~ 3.33
경영	3.86	1.48 ~ 8.77	2.84	1.63 ~ 4.08
바이오시스템	4.20	1.52 ~ 7.92	3.18	1.76 ~ 5.44
공과	4.32	1.64 ~ 8.50	3.40	2.26 ~ 5.58
사범	3.88	1.25 ~ 8.24	2.75	1.69 ~ 4.27
예술	4.40	1.50 ~ 7.63	2.03	1.50 ~ 2.92

**(2) 2015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학생부 성적		합격자 학생부 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3.39	1.08 ~ 7.42	2.58	1.33 ~ 4.17
이과	3.56	1.17 ~ 7.50	2.70	1.33 ~ 4.33
법과	3.36	1.17 ~ 6.75	2.68	1.25 ~ 4.50
사회과학	3.40	1.08 ~ 7.92	2.36	1.33 ~ 4.08
사회과학(경찰행정)	3.31	1.00 ~ 7.42	2.22	1.00 ~ 3.92
경영	3.35	1.00 ~ 8.17	2.41	1.25 ~ 4.00
바이오시스템	3.69	1.33 ~ 7.75	2.71	1.33 ~ 4.42
공과	3.80	1.33 ~ 7.67	2.95	1.42 ~ 5.25

(3) 2016학년도

단과대학(학과)	지원자 학생부 성적		합격자 학생부 성적	
	평균	범위	평균	범위
문과	3.52	1.08 ~ 7.67	2.49	1.08 ~ 3.67
이과	3.63	1.42 ~ 6.50	2.96	1.58 ~ 5.00
법과	3.48	1.08 ~ 8.00	2.68	1.50 ~ 4.08
사회과학	3.47	1.17 ~ 8.17	2.49	1.25 ~ 4.25
사회과학(경찰행정)	3.26	1.00 ~ 7.42	1.92	1.00 ~ 2.75
경영	3.40	1.00 ~ 8.42	2.52	1.42 ~ 4.58
바이오시스템	3.73	1.58 ~ 7.58	2.98	1.58 ~ 4.67
공과	3.82	1.33 ~ 7.67	3.01	1.58 ~ 5.83
예술	3.72	1.17 ~ 7.75	2.32	1.58 ~ 3.25

- 2016학년도 경찰행정학과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등급이 1.92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학생부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7학년도 논술 전형 학생부 Point> 학생부 반영과목 변경
 - 인문계열, 자연계열 관계없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기준으로 취득한 과목 중 상위 10과목만 반영
 - 상위 10과목을 하나의 교과에서 취득하였다면 하나의 교과에서 10과목 등급 반영
(예 : 자연계열 학생이 국어교과에서 10과목 1등급을 취득하였다면 국어교과에서 성적 등급 반영)



3

2014~201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1. 논술 전형 특징

동국대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고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취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기존에는 한 개 이상의 영어 지문을 출제했으나 2014학년도 이후에는 영어 지문과 함께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나 내용은 배제시켜 출제하고 있다. 즉, 고교 3년간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앞으로도 동국대 논술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출제한다는 기초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 동국대 인문계열의 논술은 평이한 수준에서 난이도를 설정하였다.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의 지문을 주로 교과서나 EBS 교재 내에서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14개에 이르는 많은 지문이 제시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지문들이 다양한 사실, 주장, 사회, 자연 현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일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 인문계열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인문, 사회, 문화 등에 걸친 다양한 독서 체험을 쌓고, 요구하는 논제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출제자는 수험생이 공통화제를 파악하고 논지를 일반화시키고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압축적으로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상반된 논거를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도 등장하는데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이나 정형화된 답안으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응용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와 주제에 대한 이해력, 문항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력, 지식의 정도와 균형감각, 추리력 등을 수험생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동국대 논술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최근 동국대 인문계 논술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둔 통합 논술적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험생은 자신의 관심영역과 전공분야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험생이 문항 요구에 따라 여러 교과 내용을 하나의 주제 내에서 풀어내는 응용력, 융복합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동원하여 설득력 있게 보여줄 때에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2. 논술 전형 유의사항

동국대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인문 I 과 인문 II 로 나누어 출제된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인문 I 논술 문제는 문과대학, 경영대학, 영화영상학과 지원자가 응시하였고 인문 II 논술 문제는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지원자가 응시하였다. 인문계 논술 문제는 공통적으로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10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 분량은 1,500자 이내로 문항 2~3개는 250~350자, 문항 1개는 550~7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를 보면, 과거와 달리 도표와 그래프를 제시하는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문제풀이가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시간이 120분에서 100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시간이 20분 줄었으므로 신속하게 제시문을 파악하고 논제를 숙지하고 문항요구에 따라 답을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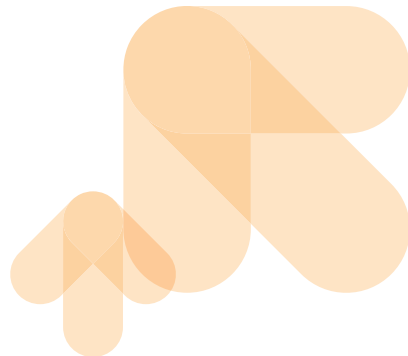
문제는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를 통한 제시문의 요약, 화제를 적용한 설명과 비판, 그리고 수험생의 견해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유형 등이 그것이다. 3가지 유형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논점을 토대로 수험생이 정확히 추론하여 요구에 맞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다. 제시문의 요약처럼 평이한 문제는 배점을 낮게 하고 있으며 비판적 시각으로 수험생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하는 문제에 배점을 높여 평가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험생은 제시문 사이에서 적용 기준과 대상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비판적 사고를 앞세우기보다 짧은 제시문에 포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논지와 핵심개념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제시문 간의 상호 핵심내용을 연결 지을 때는 그에 대한 타당하고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문제들은 단문에다 익숙한 글들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줄어든 시간 안에 지문을 해독하고 논제 요구에 맞게 견해를 정리하기 위한 수험생의 시험 적응력과 순발력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동국대 논술은 앞으로도 기존에 유지해 온 출제 패턴을 큰 변화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항상 평이한 수준의 문제만 출제된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논술은 대학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변별력과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시문의 정확한 해독만으로 요구 논제에 답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사고력을 발휘해야 풀 수 있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심층적 논의를 요구할 때는 평이한 주장에서 나아가 함축이나 귀결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물론 논제의 맥락이나 배경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시각, 독창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평범한 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론을 제시하거나 가정이 생략된 전제까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교과영역에 대한 충실한 학습과 함께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 체험이야말로 자신만의 언어로 논제에 맞는 창의적 답안을 작성해내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용 요소 이외에 형식면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내용별로 단락 구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하며 표현 의도에 맞는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철자법, 주종 관계, 문법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하고 정해진 답안 분량에 맞는 문장과 단락으로 구성해야 한다.



3. 논술 문제 및 해설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인문계 I)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본질에 관하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념이다. 그것은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회 구성원에 의해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이 실제 어떻게 다른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관념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자는 시집을 잘 가려고 대학에 간다.'라거나 '남자는 아내가 자기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담을 느낀다.'라는 인식이나 태도 등이다. 성역할 고정 관념은 사회 구성원에게 너무나 익숙하여, 사람들은 특정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의 성 때문이라고 종종 단정짓곤 한다. 이처럼 성 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 및 생각을 지배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성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행동하므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의 주체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성별에 따라서도 언어의 변이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변이는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심리적·문화적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결과이다. 사회 언어학에서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남성	여성
과묵성, 경쟁적 대화	다변성, 협동적 대화
동시 발화나 말 가로채기가 많다	동시 발화나 말 가로채기가 적다
맞장구치거나 찬사가 적다	맞장구치거나 찬사가 많다
단정 어법, 직접 명령이 많다	애매 어법, 간접 명령, 청유법이 많다
정중법을 지향한다	공손법을 지향한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로 하여,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11~12줄 (330 ~ 36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둘기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나 비둘기 개체군에서 매파형 돌연변이 개체가 나타났다고 가정하자. 매파형 돌연변이 개체가 비둘기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선 유리하다. 그러나 유리한 매파의 유전자는 급속히 퍼져 매파끼리의 싸움이 시작됨으로써 돌연변이 개체도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비둘기파의 공동 행위에 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우리는 '비둘기파의 공동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장기적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해 할 능력이 있으며, 이 공동 행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서로 논의할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 준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우리를 교화한 이기적 밈*에게도 반항할 힘이 있다. 순수하고 사욕 없는 이 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안주할 여지도 없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가르칠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 밈(meme): 문화적 진화의 단위로,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복제된다. 밈은 좁게는 한 사회의 유행이나 문화 전승을 가능하게 하고, 넓게는 인류의 다양하면서도 매우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 도킨스(Dawkins, R.), '이기적 유전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퍼트남(Robert D. Putnam, 1941~)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 등의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의 활동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 자본은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며 정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다] 1928년 영국의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19세기까지 오랫동안 격렬하게 전개되어 온 참정권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1919년에는 미국이 여성의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여성 참정권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는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활발해진 여성의 경제·사회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총력전으로 진행된 전쟁에 여성들도 참여하였는데, 이 여성들을 향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중략)

제1차 세계 대전 후 공화정이 뿌리내리고 민주주의 제도가 확대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더욱 힘을 얻었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과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남성들과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였다.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살아 있는 세계사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라] 물방울 하나는 강물을 만들지 못하지만, 그 많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노력은 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모여 결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안다면 나 개인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시민 단체나 비정부기구(NGO)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는 많다.(중략)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의미 있는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쁜 법률이나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을 올리거나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건설적인 의견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카페나 블로그를 만들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고등학교 도덕

[마]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적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 데 합의(계약)하는 것이다.(중략) 만일 정부가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에 의해 타도할 수 있다.

- 로크, '시민 정부론', 고등학교 세계사

[바]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며 동물적이다. 또한,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무정부와 공포,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 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고등학교 세계사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어를 찾아 맥락상의 공통적인 주장을 기술하시오.

8~9줄 (240~270자) [30점]



문제 3

제시문 [다], [라], [마], [바]를 시대 순에 따라 배열하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요약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시민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22~23줄 (660~690자) [40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 I)

출제의도

문제 1

[문제 1]의 주제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이다. 제시문은 「사회·문화」 교과에서 나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개념, 그리고 「독서와 문법」 교과에 나오는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 양상, 즉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이 나오는 내용([표])을 발췌했다. 문제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남녀 대화의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향후 남녀 대화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을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문제 2

[문제 2]의 제시문은 모두 고등학교 사회·도덕과 교육 과정에 속하는 교과목에서 발췌하였다. 각각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사회」, 「도덕」, 「세계사」에서 수록된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에서 제시문과 질문을 구성했다. 그 내용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기심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 2]의 제시문은 이타주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글에 속한다. 그 두 가지 글에 나타난 공통적 주장을 찾는 독해력과 그 공통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 3

[문제 3]은 두 가지를 묻고 있다. 하나는 역사상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사상을 시대 순에 관계없이 제시하여, 그것을 시대 순에 맞게 정리하는 단순한 문제이다. 다음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실례를 제시하면서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응용 문제이다.

문제해설

문제 1

제시문 [가]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사회적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문으로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주제로 삼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여 개인의 행동과 태도 및 생각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맞추어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 필요한 화법과 작문의 윤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는 성별에 따른 언어변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과 아울러 언어 변이적 특성을 이분법적으로 정리한 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임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며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만이 자기 완결성을 찾아가며 타자와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기심



을 이타적 측면으로 조정하여 제도로 승화할 수 있는 예외적 종(種)이라고 주장함을 내용에서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나]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한 지문이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내용은 이익집단과 시민사회가 사회 자본에 속하며, 이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제 3

제시문 [다]는 제시문 [나]와 마찬가지로,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시문의 주제는 사회적인 성(性)차 극복과 정치 참여라 할 수 있다. 내용은 1920년대를 전후로 하여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폐쇄적 투표권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여성들이 남성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성(性) 이기주의에 대항한 결과, 여성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한 결과로서 투표권이 확대되어 갔음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 [라]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과 연관된 지문으로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이들에 대한 차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제시되었다. 제시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며 현재적 관점에서 다수의 지성들의 노력을 통해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 사회와 조직의 노력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민주주의가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대안적 민주주의의 한 보기가 될 수가 있다.

제시문 [마]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해서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 분석하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사회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문이다. 제시문 [마]의 주제는 국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개된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시민혁명 시대의 가치를 주장한 이론으로서 영국과 미국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상이다. 과거 절대주의적 시대에 새롭게 등장해 온 시민 계층을 중심으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찾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론이다.

제시문 [바] 또한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 현상과 비교, 분석하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사회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흡스의 '리바이어던'을 제시하고 있다. 지문의 주제는 절대주의 국가의 기원이며 절대주의 시대에 계약을 통한 왕권을 옹호하는 철학적인 내용으로 요약된다. '리바이어던'은 그 자체가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분권적 상황 하에서의 쟁탈과 투쟁에서 다시 공동체와 국가의 안전판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이론화한 글이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문제 1

개념 요약형과 사회현상 분석형의 문제이므로 제시문의 주제가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임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서술 속에는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사회언어학,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 특성, 양성평등 등의 핵심 용어,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우수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시문 [나]와의 연관성을 서술해야 하며 3개 이상의 변화 요인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또한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작성요령을 반영한 답안을 예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인 성 역할의 내용은 사회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 차이가 때때로 차별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고정관념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여 개인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사고를 지배한다. (표)에서 제시된 남녀대화의 대표적 특성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화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언어의 변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개선, '남녀평등고용법' 등과 같은 법체계 정립, 보육 등과 관련한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양성평등 가치 체계의 정립을 통한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들의 주체적인 노력 등에 의한 남녀 관계를 둘러싼 사회 심리적·문화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남녀평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별에 따른 언어 변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서술하는 단순 설명형, 상황 해결형의 문제로 핵심어와 제시문 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영역, 핵심용어에 해당되는 것을 나열하면 이기주의, 이타주의, 시민사회 역할, 사회적인 성차 극복과 정치 참여, 국가의 기원 등이 있다. 우수답안에 속하는 답안이라면 제시문 [가]의 핵심어로 '공동행위', '논의할 능력', '이타주의', '육성'을 지적하고 제시문 [나]의 핵심어로 '자발적', '결사체', '신뢰 협조', '참여', '시민사회', '민주주의'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공통의 핵심어로 '참여', '연대', '협조'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제시하고, 동시에 맥락상의 공통된 주장으로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여', '연대', '협조' 등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 혹은 집단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적시해야 한다. 이외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적절한 어휘를 동원해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요령에 따라서 답안을 예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어(핵심어)들은 '공동행위', '논의할 능력', '이타주의', '육성'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자발적', '결사체', '신뢰', '협조', '참여', '시민사회',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이 두 제시문에 공통인 주제를 유추해 보면 '참여', '연대', '협조'와 같은 개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개의 제시문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여', '연대', '협조'를 통해 개인의 이기심 혹은 집단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3

여러가지 질문이 복합되어 있어 세심하게 검토한 후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먼저 질문에 맞추어 제시문의 시대 순에 따른 배열,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요약과 함께 제시문 [라]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의 구체적 사례제시, 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의 긍정적 영향 등에 대해 별도로 서술해야 한다. 우수한 답안은 4가지 질문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시대 순에 따라 제시문 [바]→[마]→[다]→[라]로 배열을 지적하고, 각 제시문에 대해 제시문 [바]는 '홉스의 절대군주의 역할의 필요성', 제시문 [마]는 '로크의 사회계약에 의한 시민 정부의 필요성과 인간 기본권론', 제시문 [다]는 '여성까지 참정권 확대', 제시문 [라]는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 등 시민의 다양한 자발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온·오프라인 상의 시민운동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그 시민운동이 참여, 절차, 공정성과 사회정의 실현 등에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현대의 시민 단체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하고, 그 다음 시민 단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이 정확하게 구사되고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도 요구된다.

질문에 따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시문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바], [마], [다], [라]로 나열할 수 있다. [바]는 절대주의와 그 이후 자유주의적 이론의 발전에 단초가 되는 글이며, [마]는 시민혁명기의 대표적인 글이다. 그리고 [다]는 선거권 투쟁 말미에 여성의 참정권 운동으로 1920년대 이후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라]는 현대사회에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민 사회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제시문 [라]에서는 현재의 다양한 시민 사회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나] 제시문에서 퍼트남은 시민의 참여가 자발적인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 비용과 정치적 효율성도 매우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시민 단체가 생겨났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익 집단과 시민 사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다. 한 예로써,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몰입 교육의 실시를 발표했을 때를 들 수 있다. 당시 시민 단체들은 그 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정책이 가져올 사교육 문제, 정책 결정의 졸속성을 들어서 거센 비판을 제기하였다. 결국 정부는 시민 단체의 반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 학부모 연대, 전국 영어 교사 모임 등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발달된 과학 기술과 인터넷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소위 '전자 민주주의'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시민 참여의 확대로 공론의 장이 활발해진 다양한 사례가 있다.

3. 논술 문제 및 해설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인문계Ⅱ)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치 참여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회, 정부, 법원 등과 같은 공식적 정치 참여자가 주로 정치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또한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략)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참여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는 선거나 국민투표를 들 수 있다.

- 고등학교 사회

[나] 시민 대다수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소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선출되거나 영향력 있는 일부 지식인 또는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제로 정부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 고등학교 법과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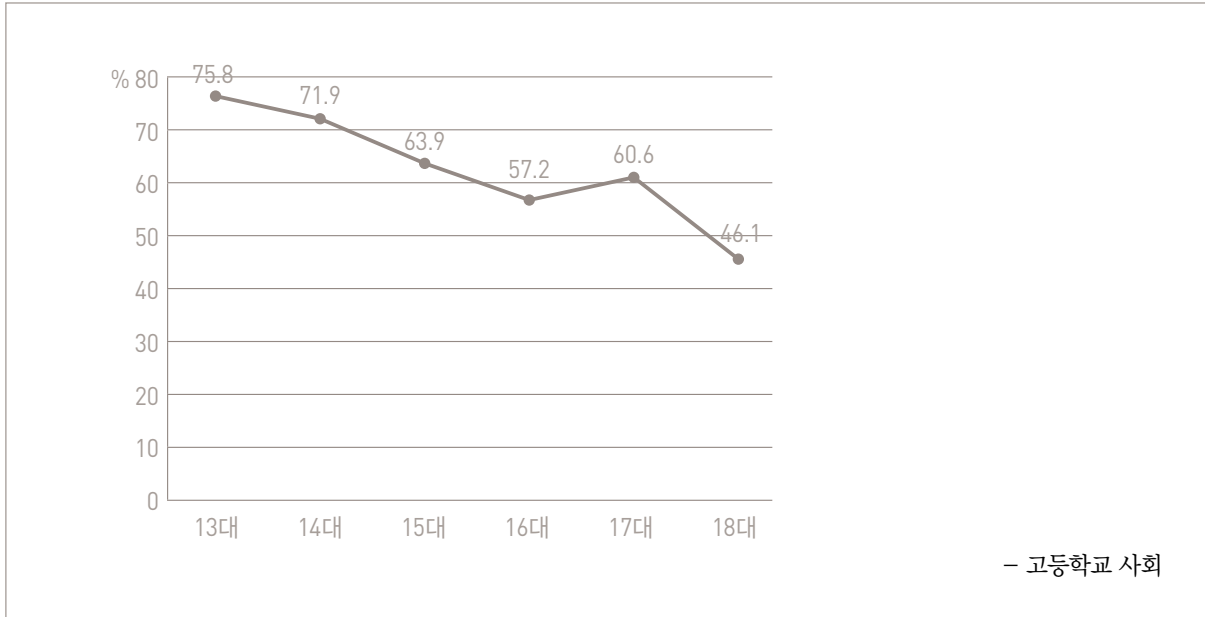
[다] 시민들이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얻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자율성을 실현하게 된다. 민주 정치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 형태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 내에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때 자율적인 주체가 된다. 또한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시민들의 요구는 정치 과정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계층이나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그들이 정치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해야 한다. 이밖에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유능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민주 정치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 고등학교 사회

[라] 그러나 무조건적인 참여의 확대가 항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정치 참여를 극대화 할 경우, 집단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참여의 이유와 방법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결정해야 한다.

- 고등학교 사회

[마] 갑국은 2014년 제18대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 개표 결과 유권자의 투표율은 46.1% 였다. 2010년의 제17대 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14.5% 포인트 하락했다. [자료 1]은 갑국의 지난 20년 동안 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마]의 [자료 1]과 같이 갑국의 투표를 추이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제시문 [가]~[라]를 참고하여 갑국의 정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서술하시오.

9~11줄 (270~330자) **[25점]**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족 형태는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과 범위를 기준으로 확대 가족과 핵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대 가족은 부부와 기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확대 가족은 보통 노동력과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고 가족 구성원의 양육과 보호에 함께 참여한다. 확대 가족은 가부장제적 질서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가족 전체의 결속과 유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달리 핵가족은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핵가족은 산업화로 가족과 일터가 분리되고 구직을 위해 가족의 이동이 잦아지는 등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핵가족은 부부가 가족 관계의 중심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핵가족이 가족 형태의 주류를 차지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가장 큰 결함은 그 비민주주의적 특성에 있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 아래에서는 여성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고, 젊은이들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을 당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근본이 같다고 보는 현대인의 관점에 설 때,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 내지 가족 윤리에 포함된 비민주주의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가족에는 매우 좋은 점도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자아(自我)가 개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족 전체에까지 미쳤다는 사실이다. '나' 하나를 지키기에 급급한 인간상보다 '우리'를 위해서 작은 나를 잊을 수도 있는 인간상이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칸막이를 넘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우리'로서 고락을 같이하는 심성이 인간의 삶을 보다 값진 것으로 만들 것임에 틀림이 없다.

— 김태길, '이상적인 가족상',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우리나라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

(단위: 천 가구,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혈연 가구 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핵가족								
부부	5.4	5.0	6.4	7.8	9.3	12.6	14.8	18.0
부부와 미혼 자녀	55.5	55.6	56.5	57.8	58.0	58.6	57.8	53.7
한 부모와 미혼 자녀	10.6	10.1	10.0	9.7	8.7	8.6	9.4	11.0
직계가족*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0	6.8	5.7
기타 가족	9.7	17.9	16.1	14.0	13.8	11.2	10.1	10.4

*직계가족 :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 자녀로 구성된 가족

— 통계청, 인구 총조사, 2008,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 변화 : 결혼 및 이혼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9(년)
조혼인율*	10.6	9.3	7.0	6.2
조이혼율**	0.6	1.0	2.5	2.5

* 조혼인율 :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

** 조이혼율 :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

— 통계청, 2010년,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라]의 조이혼율의 추이(推移)를 설명하시오.

9~11줄 (270~33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온 수많은 역사화들이 있습니다.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중략)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중략)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신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약탈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관용은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 놓았습니다. 동과 서, 고(古)와 금(今)이 동시에 숨 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아·그리스·페르시아·로마·비잔틴·오스만튀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에페소스·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그리스·로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 프레스코: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의 하나. 새로 석회를 바른 벽에, 그것이 채 마르기 전에 수채로 그림.

- 신영복, “더불어숲”, 고등학교 문학 II

[나]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끌어 버린다/차디찬 밤이다//어니젠가* 새끼 거미 끌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나는 가슴이 짜릿한다/나는 또 큰 거미를 끌어 문밖으로 버리며/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어데서 좁쌀알만한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내 손에 오르길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을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어니젠가 : ‘언젠가’의 평안도 방언. 여기서는 ‘어느 사이엔가’라는 뜻.

** 싹기도 : 싹다=삭다,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

*** 가제 : ‘갯’, ‘방금’의 평안도 방언.

- 백석, 수라(修羅), 고등학교 국어(하)

[다] 미래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를 위한 문화도 설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술의 발달에 주목한다. 누구나 손쉽게 문화의 창조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덕분에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각자의 입맛에 맞는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를 직접 창조하고 전파하는 일도 점차 수월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자본이 없어도 자기만의 방송국을 만들고 전 세계로 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개인의 개성은 더욱 존중될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문화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상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문화가 다양해지는 것은 아니다. 큰 자본 없이도 방송국을 만들 수도 있고, 영화도 제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특정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경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기업에서 제작된 영화는 우리의 영화를 밀어내고 있으며, 적은 자본으로 제작된 독립 영화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 선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기업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

문제 3

다음은 각 제시문의 학습 목표다. 이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다. •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공동체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새롭게 느끼거나 알게 된 점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다. •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① 제시문 이해에 필요한 공통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제목을 붙인 다음, ② 제시문의 개별적 특성들을 상호 비교하고, ③ 각 제시문의 특성을 반영한 공통 학습 목표 도달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20~23줄 (600~690자) [45점]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Ⅱ)

출제의도

문제 1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의 참여 주체는 시민이다. 특히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 시민 개개인이 대표자 선출과 중요 정책 결정에 관심을 두고 능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본 문제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이해력과 추론능력 등 대학학업수행을 위한 기초역량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였다.

문제 2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도표를 이해하고 여기서 드러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가족 형태와 이혼율의 변화를 소재로 삼았으며, 각 가족 형태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하는 제시문을 함께 제공한다. 제시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도표 해석에 적용하는 능력, 제시된 형태별 특징을 응용하여 합리적 추론을 전개하는 능력이 요청되므로 이해력, 분석력, 추리력, 응용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행학습(사교육)이 불필요하도록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만 뽑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미 익숙한 내용이며, 만일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제시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 3

장르와 성격이 다른 세 제시문을 읽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역량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독서와 문법)의 성취 기준을 따른 것이다. 각 제시문에 첨부된 개별 학습 목표를 참고하여 공통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글에 제목을 붙이는 쓰기 능력 수행도 점검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통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는 성취 기준(화법과 작문)을 측정하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 비교 분석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의 ‘수용과 생산(이해와 표현)’ 미덕을 통합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문제해설

문제 1

이 문항은 사회, 법과 정치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학생들이 정치 참여의 기능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서술형의 문제로 정치과정, 정치참여와 관련한 내용의 제시문들에 해당한다.

제시문 [가]의 주제는 정치 참여의 개념과 주제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 참여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찬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와 비교하여 정치 참여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특히 정치 참여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민이다.

제시문 [나]의 주제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이며 내용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권력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

여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시문 [다]의 주제는 정치 참여의 기능이며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을 실현시킬 수 있고, 시민들의 여론을 정치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라]의 주제는 바람직한 정치 참여이며 바람직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

제시문 [마]의 주제는 갑국의 투표율 변화라 할 수 있고 갑국의 의원 선거 투표율은 지난 20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주제는 확대 가족과 핵가족이다. 내용은 가족 형태 중에서 주요한 두 유형인 대가족과 핵가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주제는 전통적 가족 제도의 장단점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으나, '나'보다 '우리'에서 의미를 찾는 정서적 유대를 제공하는 좋은 점을 가졌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주제는 우리나라 가족 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이다. 내용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혈연 가구 중에서 핵가족과 직계 가족(확대 가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동의어로 볼 수 있음)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핵가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확대 가족은 감소하고 있다.

제시문 [라]의 주제는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추이이다. 표에서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혼율은 급속하게 증가해왔지만 2000년부터 대체로 안정적 추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3

제시문 [가]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문제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의 주제는 공존과 대화의 역사적 가치이며 내용은 15세기에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나서 소피아 성당을 보호한 정책적 판단이 비잔틴 문명을 500년 이상 보호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배려가 있는 역사적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시문 [나]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따라 문학이 인간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묻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방 안에서 거미를 발견하여 무심결에 문 밖으로 쓸어버렸는데, 잇달아 찾아오는 큰 거미, 새끼거미들을 바라보며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모두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이 거미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이웃의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 [다]는 2007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지구촌 문제를 통해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제시된 지문이다. 주제는 미래 사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며 급격한 문화변동을 맞게 되는 미래 사회에 소수와 다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화론적으로 진단하고, 문화 다양성 사회의 도래를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문제 1

우수한 답안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면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여 완결성을 갖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 중 다섯 가지 이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투표율이 낮은 경우 당선인은 유권자로부터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은 낮아



질 수밖에 없다.

- (2)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책임 정치) 권력을 통제할 기능이 하락할 것이다.
- (3)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 (4)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권 의식(혹은 정치적 자율성)의 실현도 낮아질 것이다.
- (5) 투표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시민의 민주 정치 수준이 하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제시문 [나]와 [다]로부터 (1), (2), (3), (4)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제시문 (라)로부터 (5)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5)의 경우 민주 정치의 발전 정도는 시민의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민주적 생활양식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작성지침을 반영한 우수답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경우라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으면 대표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은 경우 당선인은 유권자로부터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권력을 통제할 기능도 하락할 것이며,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밖에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 의식(정치적 자율성)의 실현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하락한다고 하여 시민의 민주 정치 수준이 하락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문제 2

문제유형은 서술형으로 가족형태의 변화추이와 이혼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하게 답할 수 있다. 서술 과정에서 핵가족, 확대가족, 이혼율, 사회변동, 정서적 유대, 여성의 권익, 갈등의 조정 등의 핵심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상위 등급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이혼율의 상관성을 서술하고, 그것의 통계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고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서적 유대, 여성의 권익뿐만 아니라 갈등 조정자의 존재까지도 서술하여야 한다.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우수답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조이혼율은 그간 빠르게 상승해왔다. 이것은 가족형태의 변화와 깊은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핵가족 중에서는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 가족에서만 이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에서 보듯 이들 항목의 합계치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반면, 확대 가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 형태인 확대 가족은 여성 권익의 보장에는 취약하지만 ‘우리’라는 정서적 유대를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확대 가족의 개념은 부부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들 요인은 모두 이혼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조이혼율의 상승은 핵가족의 확산 및 확대 가족의 감소에 병행하는 현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문제 3

이 문제는 서술형 문항으로, 공존과 배려의 삶을 주제로 내세워 비교분석과 대안제시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출제되었다. 핵심내용과 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존과 대화, 함께하는 삶, 바람직한 공동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성찰, 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의 존중 등을 제시하고, 이를 서술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상급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공존과 배려의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라는 공통학습 목표에 따라 “함께하는 공동체” 등의 제목을 붙이고, 세 제시문의 개별적 특성 즉, 세 제시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간양상(과거, 현재, 미래)과 문화양상(역사, 종교, 미술, 문학, 문화일반, 기술 등)을 분명하게 인지하여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논리성과

문장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작성요령에 따른 우수답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함께하는 공동체

세 제시문은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담론을 보여준다. [가]는 마호메트 2세의 소피아 성당 보호 정책이 비잔틴 미술 보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나]는 시적 화자가 직면한 현실 삶의 구체적 경험으로서 거미 일가족에 대해 느끼는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다]는 미래 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소수와 다수의 공존에 관한 글로서 문화일반 및 테크놀로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공존과 배려의 삶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인간 삶의 소중한 가치이며,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작동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이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화해가 필요하다. 예컨대, 아시아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 필요하다. 과거의 과오가 현실 공존공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지금 여기'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 등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미래사회의 소수와 다수의 공존에 대한 문제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또는 이타심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해결 가능하다. 가령 문화자본을 앞세운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응하는 독립 영화들에 대한 보호, 문화 소수자들을 위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기반 확충들도 필요하다.



2015 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인문계 I)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로애락에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칠정(七情)' 중에서 '슬픔 감정[哀]'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겁니다. 기쁨[喜]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愛]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쳐도 울게됩니다.

- EBS 국어

[나] 명령을 내리자 곡성이 하늘을 진동했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숨이 끊어질 듯했다. 형세가 격변하자 왜놈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또한 민가에 들어가 찻노라 두루 헤맸으니, 깊숙이 숨지 않고서는 머리를 깎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 나들이를 왔다가도 길에 나갔다 하면 상투를 잘랐으니, 모두 상투를 주워 주머니 속에 감추고는 통곡을 하며 성을 나갔다. 무릇 머리를 깎인 자는 깨끗이 깎이지 않고 상투만 잘린 채 머리카락이 드리워져 마치 장발승 같았다. 오직 부인네와 어린아이들만 깎이지 않았다. 이때 학부대신 이도재가 상소하여 반대한 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EBS 한국사

[다] 설령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뼛 손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령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아저씨를 힐금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아저씨는 넋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쳤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령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갑 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라] 갓난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끼는 '정'이란 무엇이었나?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지요, 다음에는 부모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히 차 있음을 보리니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요. 이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이 날 까닭이 있으랴?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련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다.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죽기는 일반이요, 그 중간에 허물, 환란, 근심, 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터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제 조문(弔問)을 제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겁니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어둡고 갑갑하고 엷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 보지 않을 수 있으랴!

- EBS 국어

[마] 이때부터 진사는 다시는 궁궐을 출입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힌 채 병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이불과 베개에 흠뻑 젖었으며, 목숨은 한 가닥 실낱 같았습니다. …… 그날 밤 진사가 들어왔는데, 저는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란에게 진사를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술이 세 잔 정도 돌아간 후에 제가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다시 뵈 수 없으니, 삼생(三生)의 인연과 백 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끝났습니다. 만약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마땅히 저승에서나 서로 만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사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우두커니 서서 묵묵히 바라보다가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 고등학교 문학

문제 1

제시문 [나]~[마]에 나타난 ‘눈물’이나 ‘통곡’이 제시문 [가]의 ‘칠정(七情)’ 중 어느 감정에서 표출되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8~10줄 (240~300자) [2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시대 손변이 송사를 맡았는데, 남동생이 “다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어째서 유산을 누이 혼자서 차지 하느냐?”라고 하였다. …… 손변이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해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박하게 하느냐?”라고 타일렀다. …… 드디어 남매에게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 EBS 한국사

[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이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적 명분론이란 각자의 직분에 따라 주어진 의무와 규범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지아비와 지어미, 주인과 노비, 양반과 상민 사이에는 각자 지켜야 할 사회적 분수가 있고, 이것이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종적질서 속에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사람들은 인격을 도야한 사족(士族)이 농민을 유교의 가르침대로 교화시켜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향약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양반 중 심의 신분제와 남성 및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이 형성되는 데 근거가 되었다.

— 고등학교 한국사

[다] 우리나라의 인기 드라마 10편을 선정하여 극중 여성 주인공의 가치관, 가정과 사회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순종과 인내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주인공은 대부분 높은 임금의 전문직, 상류 계급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은 직급이 낮은 사무직이나 외모와 관련된 직업으로 한정되며, 남성은 주로 명령·감독하는 능동적인 모습이고 여성은 그에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학교 교육에서는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접근하는 문화는 그와 다른 것이 현실이다.

— EBS 사회·문화

[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차별적인 사고와 태도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적 사고와 행동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회관계를 바꾸려면 우선적으로 억압받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 EBS 사회·문화

[마] 혈액형을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누는 ABO식 혈액형 구분 방식은 20세기 초 란트슈타이너(Landsteiner, K.)라는 병리학자가 정립한 것이다. 그는 이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ABO식 구분방식이 정립된 몇 년 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동계른(Dungern, E.V.) 박사는 ‘혈액형의 인류학’이란 논문을 썼다. 그 논문에서 그는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 유럽민족, 즉 게르만민족의 피는 A형이, 그 반대로 검은머리, 검은 눈동자의 아시아 인종에게는 B형이 많이 발견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A형이 B형보다 유전적으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순수한 게르만 혈통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논리를 폈다. 후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이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 시사해주는 점이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바] 민우회는 201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위주 낙태정책의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동안 민우회는 모자보건법 14조의 ‘사회 적응 사유’ 포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낙태가 여성의 도덕성만이 작용하는 개인적인 영역이 결코 아니며, 이 사회의 보건, 복지, 노동정책, 성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아닌 사회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낙태를 범죄시하여 음성화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임신 주체인 여성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재의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의 위상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고, 제시문 [라], [마], [바]를 이용하여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성, 남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시오.

12~14줄 (360~42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음은 송 황제 진중이 과거 준비에 전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의 일부다.

부자가 되려고 좋은 토지를 살 필요가 없나니
책 속에 천 석의 쌀이 놓여 있도다.
편안히 살려고 호사스러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나니
책 속에 황금으로 만든 집이 지어져 있도다.

과거제가 확립된 송이나 명·청, 조선에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높은 벼슬을 얻기가 어려웠다. 이 시대에 부귀영화의 삶을 꿈꾸던 많은 사람에게 과거 합격은 인생의 최고 목표였다. 과거 시험은 고단한 노력과 많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만 치를 수 있었다. 삼대에 걸쳐 급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30~40년 공부해서 겨우 뜻을 이루는 이도 있었다. 울곡 이이처럼 아홉 번이나 시험에서 장원한 수재가 있는가 하면, 김효흥처럼 76세가 되어서야 문과에 급제한 인물도 있었다.

- 고등학교 동아시사사

[나] 우리는 재물이나 쾌락 등과 같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비어 있는 항아리가 아니다. 행복만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물음을 무시한다. 삶에는 행복하게 느끼는 것 이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우리의 신념이 정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서가 사실에 근거하기를 원하고, 착각 속에 살지 않고 현실에 보다 정확하게 연결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보다 확실하게 쾌락이나 다른 경험들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실과의 실제적 연결이다. 외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다 큰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현실에 연결되기를 원한다.

(중략)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과 협동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문명사는 인간이 보다 광범위한 관계에 연계되어 있다는 장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개념은 가족에서 혈연적 소집단으로, 소집단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 질서로 발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은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감상할 줄 아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배운 사람은 보다 큰 질서의 한 부분인 거대한 영적(靈的) 질서에 민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籍)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것들 만일까? 살पर्बल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사람끼리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不辭)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利害)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盟邦)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無所有史)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고등학교 문학

문제 3

제시문 [가]~[다]에 나타난 서로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요약하고, 현대사회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삶의 유형을 제시문 중에서 선택하여 그 이유를 논하시오.

21~23줄 (630~690자) [45점]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2015 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 I)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는 인간의 감정 표출, 특히 눈물과 통곡이 어떤 감정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되, 그 구분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듯이 눈물이나 통곡이 인간의 칠정(七情) 중 슬픔[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표출되는 눈물이나 통곡은 어떤 감정이든 그 극한에서 표출되는 심리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 유사하게 표출되는 감정이 실은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학습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제시문의 내용을 이미 학습했거나, 학습하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보여주는데,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본 문항의 출제유형은 학생들의 개인의 심리 표출이나 타인의 감정 상태를 반성적이고 이타적으로 음미하여 다양한 인간과 복잡한 사회를 '상호 이해와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이해력, 분석력, 적용력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출제하였다.

문제 2

이 문제는 소수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및 불평등 현상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전개되어오는 일면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 평등사상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아직도 성적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들을 이해해보자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제시된 지문이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학습자료 내에서 발췌한 것이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다.

본 문항은 학생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역사적 맥락에서 이를 이해하고 현실사회에서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향후 대안구성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출제의도를 바탕으로 두고 이해력, 분석력 및 적용력과 응용력까지를 평가하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문제 3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도출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출제하였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개인적·배금적 풍조가 팽배한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물질적 풍요만으로 삶을 충족시켜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본 문제에 제시된 지문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와 EBS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발췌된 것이다. 난이도를 수월하게 함으로써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된 문제에 해당한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이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시문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이며 향후 참된 행복을 구현하는 데 있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은 문장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을 근거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해설

문제 1

제시문 [가]는 연암 박지원의 글로, 사람이 울 수밖에 없는 감정이나 상황을 ‘희로애락애오욕’이라는 칠정(七情)에 연결시켜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우는 행위는 슬픔[哀]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기쁨, 노여움,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의 감정에서도 그정도가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감정 표출의 근원적인 물음이자,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식민지시대에 단발령으로 인해 강제로 머리를 깎이게 된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다. 더러 머리를 깎을 수 없다고 하여 벼슬을 버린 이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속절없이 머리를 깎여 그 분노로 통곡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 분노와 통곡의 언저리에는 ‘국망(國亡)’이라는 현실과 ‘불효(不孝)’라는 명분이 자리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적의가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별해야 하는 어머니와 ‘나’가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면서 벌어진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국물이나마 더 주기 위해 식당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어머니와 그런 국물을 받으면서 울컥 눈물을 흘리는 아들 ‘나’가 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태연하려 했던 ‘나’는 어머니의 무한한 자식 사랑에 그만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컥하면서 눈물까지 흘러게 된 것이다.

제시문 [라]는 제시문 [가]에 이어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통곡을 갓난아이가 막 세상에 나왔을 때의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부짖는 것을 두고 자신이 인간세상에서 겪을 일들을 예감하여 미리 슬퍼하는 행위로 보려 하지만, 연암 박지원은 갓난아이가 갑갑한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탁 트인 세상으로 뛰쳐나와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어 참된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시문 [마]는 고전소설의 한 장면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남자인 진사(進士)가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뿌리는 모습이다. 여인과 진사는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 더 이상 살아갈 의지마저 잃게 되며, ‘이젠 모든 것이 끝났고 죽어서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계급사회였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현대의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의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이별에 직면해서 표출하는 감정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 1]은 총 25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제시문 [나]~[마]의 눈물과 통곡의 성격을 제시문 [가]에 의거하여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여기서 주요한 점은 제시문 [나]~[마]의 눈물과 통곡이 각각 다른 이유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제대로 짚었는가 하는 점이 평가의 기준이다. 즉, [가]에서 제시된 기쁨[喜], 노여움[怒],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 욕심[欲] 등의 감정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1차 변별점이다. 그런데 다음 두 가지 점은 고려의 대상이다.

첫째, 제시문 [마]를 제외하고는 슬픔[哀]과 관련된 눈물이나 통곡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 의거할 때 슬픔은 각 항목에 보편적으로 전제한다고 보고 답안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둘째, 그렇다면 제시문 [나]는 노여움[怒], 제시문 [다]는 사랑[愛], 제시문 [라]는 기쁨[喜], 제시문 [마]는 사랑[愛]에서 발로된 눈물과 통곡이다. 그런데 제시문 [나]~[마]는 또 다른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도 하다. 제시문 [나]는 미움[惡]의 감정도 들어 있으며, 제시문 [라]는 즐거움[樂]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제시문 [다]와 제시문 [마]는 같은 사랑[愛]이지만 제시문 [다]는 부모와 자식간의 자애의 사랑이며, 제시문 [마]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으로 구별된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 2

이 문제는 총 30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질문은 2가지로 구성되어 각각 15점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질문 A, B에 맞추어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시문의 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가]는 상속과 여성의 지위에 관한 고려시대 손변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재산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었다는 점은 고려사회는 가정 내에서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학생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위상이 더 높았다고 인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제시문 [나]는 성리학적 명분론이 조선시대 사회질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은 양반 관료가 지배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교적인 양반 문화가 형성되어 상명하복식 종적질서의 정착을 이루고자 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논리는 안정된 신분제 정착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남성 및 장남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형성되어 여성을 종속적인 객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로 이끌게 되었다.

제시문 [다]는 현대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순종적이며 인내를 강요당하는, 고전적인 여성상을 형상화시키는 간접적인 학습효과를 만드는 대중매체의 여성 차별적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즉 제시문 [나]에서 나타난 조선시대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구조화되면 새로운 구성원들은 그것을 다양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어 편견과 차별이 세대간에 전승이 되는 예라 볼 수 있다. 사회화가 새로운 구성원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이라 볼 때, 이 글은 편견과 차별이 전승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라]는 일상적 삶 속에서 대중들이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는 수용 인식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즉 제시문 [나]에서와 같은 성리학적 명분론이나 제시문 [다]의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고전적 수동형 여성상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에 현실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여성 스스로 사회적 차별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생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교과서에 있는 오기현의 '혈액형의 진실'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의 첨삭을 더했다. 글의 내용은 혈액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다루고 있지만, 여성차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ABO식 범주화의 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차이'의 사회보다는 범주화를 통한 하나는 우월하고 다른 하나는 열등하다는 '차별'의 사회화가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해준다. 즉 범주화가 지나치면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해당 집단의 모든 개개인이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과도하게 일반화를 하게 되고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 그 예이다.

제시문 [바]는 자발적 결사체인 한국여성민우회의 여성인권운동 중 하나이다. 제시된 사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불완전한 제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아 성취를 가로막는 제도적, 법적 제한들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들을 철폐하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한다면 성 불평등 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문제 3

이 문항에는 두가지 질문이 제시되고 있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가]는 중국 송 황제 진종의 권학문으로 과거에 합격하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시의 일부이다.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오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투자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게 되면 부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나]는 기본적으로는 행복 추구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밖으로는 현실이라는 상황 하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안으로는 배움을 실천으로 표출하여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관한 글로 삶의 한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은 행복은 물질적 풍요로만 얻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삶과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인간의 숙명 속에서 무소유의 삶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존재하는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시문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력 위에서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행복 추구 방안의 차이를 기술을 하라는 요약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

- 제시문 [가]** 중국을 위시해 조선에서도 인생 최고의 목표는 과거 합격이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저절로 부와 호화 자택이 굴러 들어온다는 것이다.
- 제시문 [나]** 행복 추구 방안이 담겨져 있다. 행복 주장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행복은 자신만이 향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타인들과 공유해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배움을 실천하여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계 질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시문 [다]** 우리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던질 줄 알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유했던 것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구속하고 있으며, 물건의 소유욕은 사람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드러난다. 무소유만이 개인의 이해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문제 1

이상적인 답안은 제시문마다 칠점 중 가장 적절한 감정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시문 [나]는 노여움이며, [다]는 사랑이며, [라]는 기쁨이며, [마]는 사랑이며, [다]와 [라]의 사랑을 부모간과 이성간으로 구별하여 서술하면 된다. 그런데 앞에 요구한 감정 대신에 부차적인 감정, 즉 제시문 [나]는 미움, 제시문 [라]는 즐거움 등을 제시한 경우도 일정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이외의 전혀 다른 감정을 제시하거나, 슬픔[哀]으로만 답하거나, 단답형으로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채 ‘[나]는 노여움이다’ 식으로 끝난 경우는 모두 감점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제시문 [가]~[마]의 네 가지 감정을 다 기술하면 최상급, 세 가지만 기술하면 상급, 두 가지만 기술하면 중급, 한 가지 이하를 기술하면 하급으로 평가한다. 또 주 감정이 아닌 부차적인 감정을 기술하면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적용하여 답안을 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나]~[마]는 각각 눈물과 통곡이 서로 다른 감정에서 드러난 예이다. 이를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칠정(七情) 가운데 의거하여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나]는 강제로 머리를 깎여 그 울분을 참지 못해 통곡하는 노여움(분노)의 감정이다. 제시문 [다]는 어머니의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 감동하여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다. 제시문 [라]는 갓난아이가 답답한 태속에서 넓은 세상으로 뿔쳐나와 울부짖는 기쁨의 통곡이다. 제시문 [마]는 사랑하는 여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흐느끼는 사랑의 눈물이다.

문제 2

질문 A는 제시문들을 적합하게 이해하고 기술하는 경우 각 5점씩 배점되도록 했다. 즉, 모든 제시문을 적절히 기술하는 경우 15점, 두 제시문을 기술하는 경우 10점, 한 제시문을 기술하는 경우 5점으로 차등을 두었다. 질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에 제시문 [가], [나], [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기대할 수 있다.

- 제시문 [가]** 고려사회는 가정 내에서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위상이 더 높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제시문 [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유교적인 양반 문화에 따른 남성 및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로 이끌게 되었다.
- 제시문 [다]** 현대에 있어서 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을 고전적인 수동적 여성상으로 형상화시키는 대중매체 등의 여성 차별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질문 B는 15점의 배점으로 제시문 [라], [마], [바]를 이용하여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성, 남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문 [라], [마], [바]의 핵심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라] 현대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 스스로 사회적 차별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생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마] 현대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을 범주화시킴으로써 남성이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남성사회 속에 아직 존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바] 현대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아 성취를 가로막는 불완전한 제도적, 법적 제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시문들을 적합하게 이해하고 차별의 원인을 제시문에서 찾아 기술하는 경우 각각 5점씩의 배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제시문에 기술된 원인을 적절히 기술하는 경우 15점, 두 제시문의 경우 10점, 한 제시문의 경우에는 5점이 부여된다.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지않지만, 제시문 [마]의 경우, ABO식 혈액형 지문의 내용을 남성과 여성의 범주화 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B에 대한 후수답안은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가 있다.

고려시대는 가정 내에서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는 평등한 사회였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유교문화에 따른 남성 및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고전적인 여성상을 내재한 '수동적인 여성화'를 표현하는 대중매체 등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현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성 스스로도 사회적 차별행위 개선을 위해 자생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아직 미흡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을 범주화시킴으로써 형성된 남성 우월적 고정관념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남성집단 속에 아직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아 성취를 가로막는 불완전한 제도적·법적 제한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 3

본 문제는 총 45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2가지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요약하는 첫 질문은 30점을, 현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삶의 유형을 선택하고 이를 밝히는 두번째 질문에는 15점이 배정되어 있다. 첫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행복 추구 방안의 차이를 기술하라는 A 요약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시문 [가] 중국을 위시해 조선에서도 인생 최고의 목표는 과거 합격이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저절로 부와 호화 저택이 굴러 들어온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 행복 추구 방안이 담겨져 있다. 행복 주장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행복은 자신만이 향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타인들과 공유해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배움을 실천하여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계 질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다] 우리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던질 줄 알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유했던 것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구속하고 있으며, 물건의 소유욕은 사람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드러난다. 무소유만이 개인의 이해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평가기준에 있어 각각의 제시문들을 적합하게 이해하고 요약하거나 논술하는 경우 각각 10점씩, 합계 30점의 배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논의문제는 15점으로 현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삶의 유형을 제시문 중에서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시문 중에서 선택하라는 조건이 주어진 만큼 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1. 제시문 [가]를 선택한 경우

제시문은 송 황제 진종이 공부를 통해 과거에 합격하면 부자도 되고 호화스런 저택도 소유할 수 있다고 학문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계획하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점을 밝히면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공을 통한 높은 지위의 획득과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사법고시에 응시한다고 가정하자. 조선시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과거 준비를 30~40년간 해온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고있는 현실과 비교하는 것이다. 사회적 명성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학부시절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세월을 감내해야 한다. 76세에 과거에 합격한 김효흥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법고시에도 연령 제한은 없다. 이른 나이에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세월 정진해도 불합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겨 변호사가 되는 길이 쉬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도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얻는 점이 크고, 그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서술하면 된다.

이러한 논리는 역으로 비용과 노력에 비례하여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발휘되는가 하는 점도 시야에 두고 논할 필요가 있다. 예로,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 지금으로는 각종 고시에 응시하다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뇌하는 점을 다루어도 좋을 것 같다.

2. 제시문 [나]를 선택한 경우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겠다는 방향으로 서술하면 된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에 소개된 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험생들은 답안을 세 가지 방면으로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첫째는 자신의 행복은 타인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둘째는 외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점을 논술해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혈연집단에서 세계 질서 속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교육은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임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여 제시하면 된다.

3. 제시문 [다]를 선택한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적·배금적 사상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물질만능 사회 속에서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라고 한다. 그렇다고 소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의 물품만 지니고 긴요하지 않은 물품은 손에서 놓으라고 이야기한다. 다만 그것은 물품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무소유의 외연을 확장하면 그것은 물질보다 중요한 정신일 수도 있다.

수험생은 이러한 사례를 들어 논리를 전개하면 될 것이다. 가령 자신이 느끼거나 체험한 소유의 불편한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소유하려던 욕심이 지나쳐 탐욕에 빠져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작은 사례를 통해 최소한의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사물에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다 크게 잃게 된다는 경험이나 독서에서 얻은 사례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다음으로 물질적인 소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점도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를 풀어 놓는다. 이러한 경우 제시문 [가]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과연 늙은이가 되어서야 과거에 합격하는 길이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과거 합격만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지름길인지, 한순간이라도 부를 향유하는 것이 최대의 삶의 목표인지를 되새겨 보는 것이다. 과거 합격이라는 집착이 거꾸로 행복한 삶을 잃게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가령 76세의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여생 동안에 얼마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한다.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물음을 시작으로 무소유의 행복을 서술해 보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한 때 한 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2015 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인문계II)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자유권을 중시하는 근대 헌법은 국가 권력의 제한을 강조하여 개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에는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맞물려 발생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는 무기력하였다. 이에 빈부격차나 독과점의 출현, 경제 공황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 고등학교 법과 정치

[나] 국내에 환자가 33명뿐인 희귀병 무코 다당증은 인체에 필수적인 분해 효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골격과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대부분 15세를 전후하여 사망한다. 이 병의 치료제를 개발한 미국의 S사는 병당 330만 원, 1년 투약분에 4억 5,000만 원의 약값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희귀병 의약품 가격의 80%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너무 비싸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내 공급이 늦어졌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병당 279만 원으로 가격을 조정했지만, 제약 회사 측은 “가격이 너무 낮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라며 8명분의 약만 국내에 공급해 왔다.

— 고등학교 사회

[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 2장 중에서)

— EBS 법과 정치

[라] 독일에서는 1918년에 제정이 무너지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는 민주적인 헌법과 의회 제도가 있었으며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심해지면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선동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와 더불어, 히틀러의 나치당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나치당은 원래 군소 정당에서 출발했지만 반유대주의, 군국 정치, 독재 정치 등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1932년 선거에서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권위주의 세력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한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

[마] 독일의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를 위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
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치는 유태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다. 그 다음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노동조
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다. …… 그 다음에는 나치가 나를 죽이려 왔습다. 그때
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다.

- 고등학교 사회

[바] 하버마스는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공적 토론의 장
소 그 자체의 중요성을 설파한 소위 ‘공론장 이론’을 주장하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이란 ‘여론에 근
접하는 어떤 것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이다. 공론장에서의 공적 토론은 분산된 개인 판단의 단
순한 집합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적인 영향 하에 협동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여론이다. 즉,
여론이란 개인 의견들의 단순 합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도출된 종합적 의견인
셈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
론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회 구성원들 누구
에게나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특정 세력들의 특권이 개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토론의 과정에서는
보편적 규범이, 토론의 결과에서는 합리적 정당성이 존재해야 함을 지적한다.

- EBS 법과 정치

문제 1

제시문 [가]의 헌법이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자유권이 가지는 한계를 제시문 [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시오.

8~10줄 (240~300자) [25점]



문제 2

제시문 [다], [라],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고,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시오.

12~14줄 (360~420자) [3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문화 사회는 한 사회 안에 서로 다른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말로서 인간 사회의 다양성, 인간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관용하고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와 평등 의식이 요구된다.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다문화적 풍토는 우리 사회를 더욱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고양된 사회로 이끌 수 있다. 다문화 사회는 나와 다른 문화와 가치에 대한 관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자 다원화된 사회의 도덕적 요소이다. 둘째, 이질적인 집단 간의 갈등 해결을 통해 사회적인 단결과 통합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적 갈등은 그 해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인지적·정서적·문화적 성숙과 함께 사회 전체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사회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 고등학교 사회

[나] 자민족 중심주의는 내부 집단 편견이라고도 하며, 자기 집단을 우대하고 외부 집단을 멸시하는 배타성이 문제가 된다. 헬렌 조페(Helen Joffe, H.)는 「위험 사회와 타자의 논리」라는 글에서 전염병의 사례를 통해 민족의 자기 중심성에 근거하여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타자’를 위험한 것으로 덧씌우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컨대, 15세기 매독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하였을 때 각 민족의 반응이 그것이다. 영국인들에게는 프랑스병(病)이었고, 파리인들에게는 독일병이었으며, 플로렌스인들에게는 나폴리병이었는데, 일본인들에게는 중국병이었다. 전염병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타자’라는 반응은 어느 민족에게나 존재하는 자민족 중심주의의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는 고전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그(카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조금 넘었다고 말했다. 포천 부근의 어느 청바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친구를 만나러 주소만 들고 찾아왔다. 밤새 헤맸다는 것이었다. 그가 들고 온 주소는 부천시 춘의동, 바로 우리 집 근처였다. 부천시 춘의동 희망로…… 라고 써진 쪽지를 나(선우)는 햇빛 속에서 내려다보았다.

“팔은 왜 그래요?”

“청바지 공장에서…… 샌장에서 일, 일 하는데요. 샌드기에 잘못해서 맞, 맞아 가지고 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샌장이 뭔데요?”

“그것이, 뭐, 뭐냐면요…….”

그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지 자신이 입고 있는 청바지의 앞부분을 가리켰다. 앞부분은 해진 것처럼 희끄무레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기계로 청바지에 대고 모래를 뿌리는 공정이 진행되는 곳을 샌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계로 쏘아 보내는 모래들은 모래 폭풍보다 훨씬 강력하게 날아가 청바지의 표피를 해진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했다.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에게 샌드기로 모래를 뿌리면 모래들이 살점을 날려 보내고 뺏속까지 모래알들이 박힌다고 했다.

“병원에 가야겠네요. 그럼.”

“괜찮아요. 멀, 멀리서 쏜 걸 맞았거든요. 피, 피, 피부만 조금 다쳤으니까 소, 소독만 해 주면돼요.”

※ 이후 줄거리: 카밀과 선우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선우는 카밀의 아이를 낳지만, 카밀은 외국인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다 분신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 고등학교 문학

[라]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등의 자아 정체성(identity)과 관련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청소년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고하게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홀로서기’, 즉 주체성 확립에 힘써야 한다.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은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가정, 사회, 국가의 한 구성으로서 인식하여 더 나아가 그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수용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할 때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 EBS 사회탐구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 설손은 원에 살았던 위구르 인으로, 고조부가 원에 귀화한 후 대대로 벼슬을 하였다. 설손은 원 순제 때 진 사시에 합격하여 황태자에게 경전을 가르쳤는데, 이때 원에 머물던 공민왕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피해 고려에 들어와 귀화하였다. 그는 공민왕에게 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고, 시에도 능 하였다. 설손의 아들 설장수는 몽골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한 후 고려 조정 의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대명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장수는 고려 말 대표적 사대부로 이름을 날렸으며, 왜구격퇴론을 올리고 공양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고등학교 한국사

[바] 다음은 어느 외국인 출신 축구 선수에 관한 인터넷 뉴스의 보도 내용과 그와 관련한 어느 네티즌들이 작성한 댓글 중 일부이다.

〈보도내용〉

“한국은 제2의 고향, 한국 국가 대표로 뛰고 싶어요.” 한국 귀화 의사 밝혀. 한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 ○○○○는 경기 직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한국 국가 대표 선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고 귀화 의사를 표명했다.

〈댓글〉

- 과연 이런 선수가 애국심이 생길까. 처음부터 없던 애국심이 생기겠나.
- 그런 추세로 가면 국제 경기는 클럽 경기와 다를 바가 없다.
- 그럴거면 아예 월드컵이란 장르를 없애라.
-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나.
- 이려고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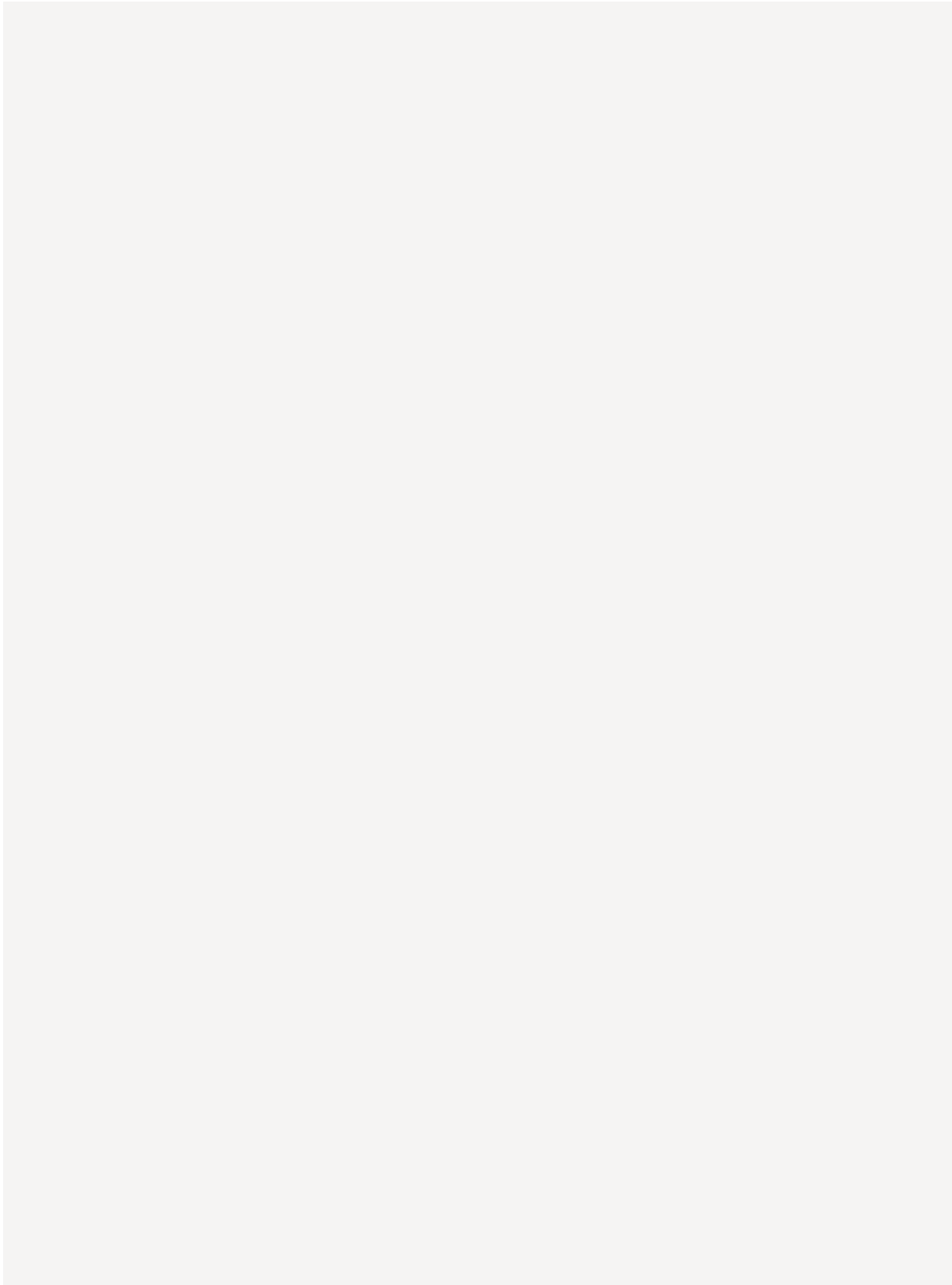
문제 3

다음은 공익광고의 내용이다.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20살이 넘으면 군대를 갈 것이고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 당신처럼.”

[가]~[다]의 제시문을 이용하여 위의 공익광고에 담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비판하시오. 그리고 이 공익광고에 나오는 소년이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라]~[바]의 제시문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20~23줄 (600~690자) [40점]





2015 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Ⅱ)

출제의도

문제 1, 2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 중 「법과 정치」와 「사회」 두 가지 교과목 내용에서 모든 제시문을 발췌하였다. 출제 의도는 시민은 참여를 통해 법적·사회적으로 정치 공동체와 연결된다는 간단한 주제의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와, 민주주의 참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단순 해석형 문제로서 제시문에서 자유권의 한계를 설명하는 문구를 찾아 기술하면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단순 설명형과 상황 해결형을 모두 적용한 문제로서, 민주주의 원리가 도출된 이유를 제시문에서 찾아 설명하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 사회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 3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하며 3D업종의 기피 현상,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이주결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인구의 약 3%를 넘어 2050년에는 그 인구가 약 5%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한 자기중심주의적인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심하다. 이 문제는 각종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자아 정체성과 다문화 사회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1)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의 사회적 무의식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media literacy)을 측정하고, 2)다문화 가정의 출신자가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문제해설

문제 1

제시문 [가]의 내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자유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영역에 대해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즉 수험생은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권이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문 [나]의 사례에서 찾아 지적해야 한다. 단순 해석형 문제로서 제시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밑줄친 내용은 민주주의가 국가의 권력 창출, 통치 과정 두 가지에서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야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이 나온 이유를 제시문 [다], [라], [마]에서 각각 찾아 해석한다.

수험생은 제시문 [다]에서 국가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고, 또한 이 점이 권력을 구속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을 거부하는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 수험생은 국가 권력의 창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통치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제시문 [마]에서는 참여 민주주의, 즉 시민의 정치 참여가 있어야만 통치과정에서 기본권이 준수될 수 있으며, 시민 스스로가 국가를 다스린다는 국민 자치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제시문은 국가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 모두에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제시문 [바]에서와 같이 생활정치, 공론의 장을 통한 참여만이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민주

주의의 위기 극복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삶의 영역 즉 공공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공공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 좋다.

문제 3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다문화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안의 사회적 무의식에 대한 비판적 읽기 능력(media literacy)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그를 위해 활용할 제시문 [가]~[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고 그 긍정적 가치를 제시한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와 평등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세계사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의 자기중심성에 근거하여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타자'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내부 집단의 편견을 전염병의 사례로 설명한다.

제시문 [다]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고된 삶을 재현한 문학 작품에서 아직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3D산업에 종사하는 하위주체로서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 중 제시문 [가]의 주장처럼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나]와 [다]처럼 세계사적 사례나 문학적 재현 모두에서 내부 집단의 편견과 동화주의의 고정된 의식의 탓에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내가 아닌 타자'에 대한 차별적 반응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공익광고에서 다문화 가정, 혼혈,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은 다수의 선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우선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공익광고에는 김치, 세종대왕, 독도 등 '한국적인 것'(부계(父系))의 정체성, 즉 다수에 대한 동화만을 요구하며 동일성의 사고방식이 심층에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에는 본래의 선의(善意)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 소년의 다문화(모계(母系))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그들에 대한 다수의 자기(민족)중심주의적인 배타적인 시선, 더 심하게 말하자면 배제 혹은 동화주의의 폭력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비판해야 한다.

외국인 축구 선수의 귀화 의사에 대한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한 제시문 [바]처럼 우리 사회는 귀화자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실에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였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민족의 자기중심성에 집착하며 애국심을 본질주의적으로 사고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제시문 [마]에서와 같이 역사적으로 보면, 설손과 그 후손처럼 위구르인이었으면서도 원나라와 고려로의 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귀화인의 사례도 많다. 제시문 [라]의 주장처럼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 본래 정체성이란 인종, 성별, 계급,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주제이다. 따라서 이상의 제시문 [라] ~ [바]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문제3] 중의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 차이를 존중받으며 우리 사회에서 주인공을 가지고 주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문제 1

우수한 답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1)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의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2) 희귀병 류코 다당증 환자들의 사례와 같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만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 (3) 국가는 최소 개입이 아니라 적극 개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문제 2

우수한 답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제시문 [다]에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구속요건은 국민 기본권의 보장 즉, 생명과 자유와 행복 보장에 있다는 것을 기술해야 한다.
- (2) 제시문 [라]에서 국가 권력의 창출이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술한다. 즉,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통치 행위가 없으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 (3) 제시문 [마]에서 대표자를 뽑은 이후에도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국민의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음을 기술한다.

위의 내용을 병렬식으로 기술해도 되지만, 이를 종합하여 “근본 목적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자치는 국가 권력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 과정에도 해당되고 이 둘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상실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치적 무관심을 벗어나 ‘폭넓은 참여와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수행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협동과 자치에 기반한 참여 민주주의를 제안하면 우수한 답안이 된다.

문제 3

첫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차별과 편견의 사회적 무의식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답안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익광고 본래의 선의(善意)를 정리하고, 자기(민족)중심주의에 의한 타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층에 내재함을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밖에 조건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제시문을 활용하여 표현력과 논리력을 갖추어 서술해야 우수답안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광고 속 소년이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것으로 공익광고 속 소년의 다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정의해야 하며 다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 문장 표현력과 논리력을 갖추고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서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침에 근거하여 두 질문에 대한 우수답안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관용하고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와 평등 의식을 요구한다.([가]) 그런데 민족의 자기중심성에 근거하여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타자’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내부 집단의 편견의 예는 세계사적으로 흔히 찾을 수 있다.([나])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른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고된 삶이 문학 등을 통해 흔하게 재현되듯이,([다]) 다문화 사회화로 인한 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익광고에서 다문화 가정, 혼혈,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표면에 드러나는 메시지는 다수의 관용과 선의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공익광고에는 김치, 세종대왕, 독도 등 부계(父系)의 ‘한국적인 것’의 정체성, 즉 다수에 대한 동화만을 요구하며 다문화적 정체성은 부정되는 동일주의의 사고방식이 심층에 내재해 있다. 이 광고에는 본래의 선의(善意)에도 불구하고, 광고 속 소년의 다문화(모계(母系))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그들에 대한 다수의 자기(민족)중심주의적인 배타적인 시선, 더 심하게 말하자면 배제 혹은 동화주의의 폭력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축구 선수의 귀화 의사에 대한 네티즌의 댓글을 소개한 글처럼 우리 사회는 귀화자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실에 부정적 반응이 아직 우세하다. 하지만 그 부정적 이유가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애국심을 본질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씁쓸하다.([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설손과 그 후손처럼 위구르인이이었으면서도 원나라와 고려로의 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귀화인의 사례도 많다.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라]) 본래 정체성이란 인종, 성별, 계급,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주제이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문제3] 중의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그 차이를 존중받으며 우리 사회에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주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인문계 I)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빈곤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생존 욕구를 비롯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또는 조건을 말한다. 한편, 상대적 빈곤은 현대 사회의 풍요한 생활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빈부 격차 혹은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은 자신들의 환경이 사회 활동을 하며 만족감을 갖는 데 필요한 생활 조건이나 환경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 가고 있으며, 비타민A 부족으로 3분에 1명씩 시력을 잃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 아프리카의 상황은 특히 열악한데,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전 인구의 36%가 굶주림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전 세계 인구를 비만으로 만들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는데 왜 지구 한쪽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왜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아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일까?

-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뉴욕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 한 편이 한국에 불어넣은 뉴욕 바람은 광풍에 가까웠다. 뉴요커인 그녀들이 수다와 함께 즐기던 아침 겸 점심을 의미하는 브런치는 이태원과 청담동을 넘어 홍대와 대학로 주변까지 파고들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뉴욕의 한 벤치에서 한 입 베어 물던 컵케이크 역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집세 낼 돈은 없어도 마음에 드는 비싼 구두는 사고야 마는 여주인공 탓에 한국에서 생소하던 명품 신발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익숙한 상표가 되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을 선망하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 그들이 즐겨하던 명품을 두르며, 그들을 흉내 내는 유사 뉴요커가 우리의 거리에서 종종 발견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이 지배하던 삶의 영역으로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산되는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 중 하나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와 제약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현상을 생각해보라. 건강, 교육, 공공안전, 국가보안, 사법체계, 환경보호, 스포츠와 여가활동, 임신과 출산 등의 사회적 재화에 시장논리가 개입하는 현상은 30년 전에는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지난 수십 년이 빈곤 가정과 중산층 가정에 특히 가혹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빈부 격차가 커졌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상품화로 인해 돈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 가난은 사회적이면서 심리적인 조건이다. 인간의 실존이 단지 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 수준'에 따라 측정될 때, 그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괴로움, 고통 그리고 굴욕을 느낀다. 그것은 '정상



의 삶'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음을 뜻하며 또한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지어 수치스러움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가난은 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기회들과 단절되고 '삶이 제공해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소비자 사회에서 정상의 삶이란 소비자의 삶이고 소비자들은 만족과 생생한 경험의 기회들 가운데에서 선택하느라 바쁘다. 오늘날 사회의 비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주관적 결핍감을 개발'하는 데 있다.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 원리에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유한 이들이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시되고 위축되고 왜소해져야 한다. 부자는 보편적인 숭배의 대상이 된다.

— 지그문트 바우만, 「새로운 빈곤」

문제 1

제시문 [가]는 빈곤의 개념을 정리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서 드러난 욕구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5~6줄 (150~180자) [10점]

문제 2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한 이유를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찾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9~11줄 (270~330자) [2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30대 남성이 온라인 논쟁을 벌이던 동갑내기 여성을 찾아가 흥기로 살해했다. 2010년 한 웹사이트에서 친해진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지면서 서로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욕설과 비방을 했고, 급기야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 이번 일은 사이버 공간의 다툼이 현실로까지 이어진 극단적인 사례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념, 지역, 피부색 등을 빌미로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 지역감정과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저질 발언이 범람하는 것이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사용률은 78.4%에 이른다. 인터넷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 동아일보, 2013년 7월 24일자

[나] 현실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의 행동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의 필요도 현실에서보다 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를 벗어난 곳이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경험을 자유롭게 즐기고 나누기 위해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교류하며 관계를 맺는 곳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칙'은 현실과 다르지 않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관용이다. 관용이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연다는 의미이다.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낯선 것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이질적인 것을 다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관용은 소극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소극적인 관점은 배타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다. 반면에 적극적인 관점은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화 다원주의가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공감은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공감은 또한 우리 자신의 공동의 현실을 만드는 수단이다. 공감은 내가 타자와 함께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구조적 방법을 통해 마음과 느낌과 감정과 이성을 하나로 묶어 준다. 공감의 순간은 거리낌 없는 참여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완전히 빠져 그 느낌에 압도된다면 자아의식을 잃기 때문에 그들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상상할 수 없다. 공감은 미묘한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공감에는 너와 나를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두 존재의 정체성을 합치고 공동의 정신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제레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마] 유럽 근대사의 구성 원리가 근본에 있어서 '존재론'임에 비하여 동양의 사회 구성 원리는 '관계론'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존재론적 구성 원리는 개별적 존재를 세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그 개별적 존재에 실체성



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개별적 존재는 부단히 자기를 강화해 가는 운동 원리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기 증식을 운동 원리로 하는 자본 운동의 표현입니다. 존재론적 세계 인식은 개별 존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질서를 만들어 냅니다.

관계론적 구성 원리는 개별적 존재가 존재의 궁극적 형식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승인합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동양 사상의 핵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仁)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仁)은 기본적으로 인(人)+인(人) 즉 二人의 의미입니다. 즉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을 人間, 즉 인(人)과 인(人)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동양적 구성 원리로서의 관계론에서는 '관계가 존재'입니다.

「논어」의 화동론(和同論)은 근대사회의 본질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담론입니다. 화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과 공존의 논리입니다. 동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가치관만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 흡수, 합병의 논리입니다. 동의 논리 아래에서는 단지 양적 발전만이 가능합니다. 질적 발전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화의 논리 아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신영복, 『나의 동양고전 독법 : 강의』

문제 3

제시문 [다]~[마]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와 제시문 [나]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의와 규칙'을 실천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서술하시오.

21~23줄 (630~690자) [40점]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3.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센티브는 단순히 말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 하도록 설득하는 수단이다. 인센티브의 종류로는 돈과 관련된 경제적 인센티브, 도덕심에 의존하는 도덕적 인센티브, 신체상의 구속을 담는 강압적 인센티브가 있다. 경제학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초점을 둔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보상이나 이득처럼 편익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더하게 하는 긍정적인 인센티브와 벌금이나 손실처럼 비용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덜 하게 하는 부정적 인센티브가 그것이다.

- 고등학교 경제

[나]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제시된 인센티브가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다. 4개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50문항의 IQ 테스트를 한 것인데 요구조건이 특이했다. A그룹은 '최선을 다할 것', B그룹은 정답 하나에 '3센트' 지불, C그룹은 정답 하나에 '30센트' 지불, D그룹은 정답 하나에 '1달러' 지불이 그것이었다. 그 결과 C그룹과 D그룹은 아무런 보상이 없는 A그룹보다 평균 6개의 정답을 더 써냈다. 놀라운 것은 3센트의 인센티브가 있었던 B그룹의 성적이 가장 저조했다는 사실이다.

- 이상범, 「Venture Square」

[다] 1970년대에 몇 명의 연구진이 도덕적 인센티브를 경제적 인센티브로 대체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연구 목적은 현혈에 숨겨진 동기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이 현혈이라는 이타적인 행위에 대해 칭찬을 받을 때보다 적은 액수의 현금을 받을 때 오히려 현혈을 덜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박애정신에서 우러나온 고귀한 행동이 금전적 대가의 도입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 가며 몇 달러를 버는 천한 행위로 돌변한 것이다. 그 몇 달러는 현혈까지 해가며 벌어야 할 가치가 없는 돈이다.

- 스티븐 레빗 · 스티븐 더브너, 「괴짜 경제학」

[라] 다음은 A유치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 유치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3시이다. 유치원에서는 부모들에게 3시 전에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매번 늦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별로 다급한 기색 없이 늦게 오는 부모들이 있었다. 이런 부모들 때문에 교사들의 퇴근 시간이 지체되자 유치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벌금제도를 만들었다. 3시가 넘으면 15분마다 1,000원씩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벌금제도를 시행 한 후 늦게 오는 부모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졌다. 심지어 매번 늦지 않았던 부모들도 늦기 시작하였다. 부모들은 이것을 아주 수지가 맞는 장사라고 생각한 것이다. 15분 늦을 때마다 벌금을 1,000원씩 낸다면 4,000원으로 아이들을 1시간 더 맡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어찌 괜찮은 장사가 아니겠는가? 얼마 뒤 유치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곧 바로 이 벌금제도를 없앴다.

- 고등학교 경제

문제 4

제시문 [가]~[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A유치원에서 사용한 인센티브의 종류를 밝히고, 해당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들을 서술하시오.

8~10줄 (240~300자) [25점]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 I)

출제의도

문제 1

제시문에서 핵심내용을 찾아내 답안의 근거를 직접 명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발췌한 글이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주제를 찾아내고 물음에 답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빈곤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국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의 대입 논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요약, 비교, 논증 및 해석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논술을 충실히 대비한 학생들이라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 즉, 주제를 간략하게 비교 요약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두 가지의 주요 논점을 분석해내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문제1]은 논술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무난히 작성할 수 있는 '난이도 하'에 속하는 평이한 수준에 속한다.

문제 2

학생들의 독해력, 요약능력, 분석력, 논리적 추론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자신의 의견을 통해 비판적으로 제시하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중'의 수준에 속한다.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는 각각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지그문트 바우만의 '새로운 빈곤'에서 발췌한 글로 교과서 외의 지문이기 는 하지만 수험생에게 비교적 익숙한 주제의 글이어서 해독과 답안 작성에 그다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문제 3

인문계 I 논술에서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문제로서, '사이버 공간과 인간 관계론'이라는 주제를 통해 타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이부동의 관계론을 통해 수험생의 변별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중'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논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타난 미묘한 차이들을 읽어내는 종합적 사고력,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의력과 문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평가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 깊은 답안 작성이 요구된다. 문제 유형은 해당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문에서 찾아 작성하는 형태와,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문제 4

이 문제는 경제적 유인과 인간 행동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으며, 요구 논제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논리적 추론에 의해 간단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엄밀한 독해를 통해 제시문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지 못하면 정답을 도출할 수 없는 논리력 평가 문제이다. 또한 세 가지의 정답을 모두 기술해야하기 때문에, 답안의 우수성을 쉽게 차등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논리적 비약이 없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정답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독해력과 논리력이다. 난이도는 '중'에 해당된다.



문제해설

문제 1

제시문 [가]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에 수록된 글로, 빈곤의 정의를 요약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빈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 제시문 [가]와 동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세계빈곤의 현황(장지글러 인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제시문은 절대적 빈곤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마지막 문단에 절대적 빈곤이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 욕구의 문화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커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집세 낼 돈은 없어도 비싼 구두를 사고야 마는 여주인공을 선망하고 따라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라] 상품화 현상이 모든 재화에 적용되는, 다시 말해 비시장 규범이 지배하던 다양한 삶의 영역의 재화들도 이제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글이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빈곤 가정과 중산층 모두에게 고통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세상, (소비)상품시장의 확대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마] ‘소비자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다. 제시문 [라]가 상품시장의 확대라는 공급체계를 말한다면, 이 제시문은 생산되는 상품의 수요체계 즉 ‘소비자 만들기’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비사회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주관적 결핍감을 개발’하는 사회이며, 따라서 상대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3

제시문 [가] 인터넷이 생활필수품이 된 현실에서 이념, 지역, 피부 등을 빌미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시문 [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을 벗어난 곳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예의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시문 [다] 관용이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연다는 의미이다.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낯선 것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이질적인 것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불어 소극적인 관용과 적극적인 관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관용의 입장으로서는 화이부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라] 공감의 순간은 거리낌 없는 참여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완전히 빠져 그 느낌에 압도된다면 자아의식을 잃기 때문에 그들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상상할 수 없다. 공감은 미묘한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제시문 [마] 동양의 사회구성 원리인 관계론은 개별적 존재가 존재의 궁극적 형식이라는 서양의 존재론을 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험생은 이들 제시문을 바탕으로 존재론과 관계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존재론을 지양하고 관계론에서의 인간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제시문 [다]~[마]에서 논의된 개념과 개념 정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을 지적하고,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의와 규칙을 위한 나와 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문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문제 4

제시문 [가] 인센티브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 [나]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가 항상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설명한다. 이 실험이 던지는 시사점은 물질적 보상은 충분해야 한다. 즉, 미미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 인센티브 간의 전환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헌혈의 동기를 밝히고자 실시한 실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을 통해 수험생은 헌혈과 같이 순수한 도덕적 인센티브에 바탕을 둔 행위도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면 경제적 행위로 전환되어 증가할 수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시문 [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A유치원 사례를 설명한다. A유치원에서는 아이를 데려가야하는 시간에 지각하는 부모들을 줄이기 위해 15분당 1,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하지만 예상치 않게도 벌금제도를 시행한 후 지각하는 부모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전에 늦지 않던 부모들까지 늦게 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제시문을 독해한 것을 근거로 인센티브의 종류, 그리고 도덕적 인센티브와 경제적 인센티브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다면 질문에 대응해 적절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문제 1

평이한 비교·요약의 문제이다. 빈곤의 개념을 서술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욕구의 차이를 짧게 서술하면 된다. 단순히 제시문 [가]에서 정의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최우수 답안은 아니다. 논지의 핵심은 '상대적 욕구가 빈곤과 관련이 있는지'이다. 빈곤의 정의가 '기본적 욕구'의 미충족이므로, 이는 제시문 [나]에서는 분명하지만 제시문 [다]에서는 수험생들이 고민할 여지가 있다.

우수한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1) 제시문 [나]의 욕구 :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생계비 – 절대적 욕구
- (2) 제시문 [다]의 욕구 : 풍요한 생활환경 속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또는 만족감을 갖는 데 필요한 생활조건이나 환경 – 상대적 욕구
- (3) 제시문 [나], [다]가 기본적 욕구임을 서술하는 것, 즉 상대적 욕구도 기본적 욕구라는 점의 제시

문제 2

상대적 빈곤이 오늘날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를 제시문 [라]와 [마]에서 찾으면 된다. 이는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이므로 분석·요약하는 수준이다. 답안은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제시문 [라]에서는 '사회적 재화에 시장논리가 개입'하게 되어 이제는 비시장 규범이 작용하던 삶의 영역은 줄어들고, 그 대신 모든 영역이 상품화되고 있어 '돈이 없으면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기술하면 된다. 둘째, 제시문 [마]에서는 '소비자 사회에서 정상의 삶이란 소비자의 삶'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주관적 결핍감을 개발'하는 체계에 초점을 둔다. 즉 소비자들이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부자를 숭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소비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를 서술하고 나면, 수험생은 소비주의가 상대적 빈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절대적 빈곤, 최저생활과 관련된 절대적 욕구는 소비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다'라는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면 훌륭한 답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술할 때 우수한 답안이 된다.

- (1) 공급측면에서, 비시장 규범이 지배하던 삶의 영역의 상품화, 사회적 재화들에 시장논리 개입으로 인한 상품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돈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상대적 욕구가 증가한 측면을 기술
- (2) 수요측면에서 소비자 정체성 만들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주관적 결핍감'의 지속적 개발에 있음을 강조하고, 따라서 정상의 삶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욕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
- (3) 오늘날 자본주의의 특성인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최저생활과 관련된, 오히려 더 긴급한 절대적 빈곤은 무시되는 빈곤의 딜레마가 있음을 비판

문제 3

본 문제는 제시문에서 중요한 개념을 선택하여 자신의 논리를 개진하는데 평가의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이 답안에 담겨야 한다.

첫째, 현재 목격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익명성과 그로 인한 무책임성 등을 중심으로 현상의 원인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제시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원인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의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독해력이 요구되며, 중심적인 키워드를 찾아내고 또한 유추해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존재론은 이 세계를 '본질'을 가진 어떤 것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동일성과 배타성이 주도적으로 기능한다. 지배와 억압, 흡수와 합병이 특징인 동의 실천 논리로 인해 적극적인 관용의 자세와 공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



나고 있다고 원인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앞서 파악한 문제 원인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원인을 파악하는데 지적된 인간관계의 현재 모습이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원인으로 이해를 하였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제시문들의 논리적 연결을 무시하고 막연하게 자신이 생각한 대안을 나열하는 것은 곤란하며, 논증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가치 판단이 더해질 필요는 없다. 제시문들의 관점에 기초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시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을 포착하는 분석력과 중요 개념 그리고 중요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서, 제시문 [다]~[마]의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관용, 공감, 관계론 등의 핵심용어에 대하여 제시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정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개진함은 본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 우수답안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지적되는 제시문들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시문 [다] 관용이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연다는 의미이다.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낯선 것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이질적인 것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불어 소극적인 관용과 적극적인 관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관용의 입장에서 화이부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 [라] 공감의 순간은 거리낌 없는 참여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완전히 빠져 그 느낌에 압도된다면 자아의식을 잃기 때문에 그들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상상할 수 없다. 공감은 미묘한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제시문 [마] 존재론과 관계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존재론을 지양하고 관계론에서의 인간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제시문[다]~[마]에서 논의된 개념과 개념 정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 4

제시문 [라]의 A유치원에서 사용한 인센티브의 종류를 제시문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밝히고, 벌금 부과 의도와 달리 지각하는 부모가 늘어난 현상에 대한 이유를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우수한 답안으로 처리된다.

- (1) A유치원에서 사용한 인센티브는 '부정적인 경제적 인센티브'이다.
- (2) A유치원에서 사용한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벌금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제시문(나)의 IQ테스트 실험은 사람들을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은 보상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보상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벌금을 부과 할 때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미미한 수준의 벌금 부과는 아예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든다.
- (3) 두 번째 이유는, 기존에 지각을 안하던 부모들의 도덕적 인센티브가 경제적 인센티브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많은 부모들은 지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적 인센티브에 따라 아이들을 정시에 찾아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A유치원이 벌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함에 따라 지각이라는 도덕적 행위가 경제적 거래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벌금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경제적 유인에 해당하므로 이전에 지각을 하지 않던 부모들도 죄책감 없이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어 지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2014 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인문계II)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05년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지사는 내무성의 2월 15일자 ‘훈령 제87호’에 따라, 1905년 2월 22일에 “오키도(隱岐島)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즉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이제 본 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함.”이라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다. 이 고시 제40호의 근거가 된 일본 내각결정문의 요지는 첫째 독도에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形迹)이 없고, 둘째 민간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1903년 이래 이 섬에 막사를 짓고 인부를 이동시켜 어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상 ‘점령(occupation)’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 정재민,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나] 1876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모든 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조사·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으로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기죽도약도(機竹島略圖)」에 그려, 이 ‘울릉도 외 일도(一島)’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내무성이 1877년 3월 17일자로 태정관에 “울릉도를 관할로 할 것인가에 대해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질의가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울릉도는 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후 별지 서류에서 요약 정리한 바, 1696년 정월 제1호 구(舊)정부(에도 막부)의 평의, 제2호 역관의 통보서, 제3호 조선에서 온 서한, 제4호 이에 대한 우리나라(일본)의 답서 및 보고서 등과 같이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라는 ‘품의서’를 올렸다. 태정관은 이에 1877년 3월 29일자로, “질의한 바의 울릉도 외 일도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 고등학교 한국사

[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 군청(郡廳)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區域)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즉 독도)를 관할(管轄)할 것.

— 고등학교 한국사

[라] 1906년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올린 보고서와 지령

—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가 1906년 4월 29일자로 올린 보고서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 바깥 바다 100여 리 밖에 있는데, 4월 초 4일 진시(辰時) 가량에 윤선(輪船) 1척이 군내 도동포에 내박(來泊)하여 일본 관인(官人) 일행이 관사에 이르러 스스로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라고 말하온 바,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 헤아리시기를 엿드려 바라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기를 바라옵니다.

— 참정대신 박제순이 1906년 5월 20일자로 내린 지령

보고는 잘 받아 보았다. 독도의 일본 영토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

— 고등학교 한국사



[마] 국제법상 ‘영토 권원(title to territory)’

국제법상 ‘점령(occupation)’이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해당 영토가 무주지(無主地)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영토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실효적 지배란 일반적으로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 정재민,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문제 1

제시문 [가]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킨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그 근거가 된 내각 결정문의 요지를 서술한 것이다. 제시문 [나]~[마]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의 독도 편입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서술하시오.

12~13줄 (360~390자) [2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환(circle)’은 원래 그것이 나온 지역으로 ‘재수출’될 만큼 매우 철저하게 적용된 외래문화의 산물을 언급하는 데 적절한 은유이다. 예를 들면 고급문화(혹은 교양)와 저급문화(혹은 대중) 간의 순환성(circularity)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이 두 문화 사이의 교류는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가 앞선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적할만한 가치가 있다.

19~20세기 일본과 서구 간 문화적 관계의 역사는 이러한 종류의 매혹적인 순환성을 잘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시각 예술에서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을 발견한 시기는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등이 일본을 발견한 것보다 다소 늦게 이뤄졌다. 이미 아카데미가 지배하는 미술 전통에 대항해 혁명 중이던 서구 예술가들은 일본의 사례에서 특히 목판 인쇄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대칭적 구도, 서예적인 선, 평면적인 색상의 사용을 모방했다.

음악의 경우 다케미쓰 도루(武満徹) 같은 일본인 작곡가들이 존 케이지(John Cage)와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 같은 서구 작곡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미 일본 음악에 영향을 받았던 작곡가였다. 푸치니(Giacomo Puccini)는 오페라 「나비부인」(1907)을 위해 일본 음악적 요소를 끌어온 반면,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푸치니의 작품을 번안해 왔다. 최근 한 역사학자는 이를 ‘귀환(repatriation)’의 연속이라 칭했다.

– 피터 버크, 「문화 혼종성」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라틴 아메리카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하나의 문화가 또 다른 문화로 편입·수용·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어 새로운 모습의 문화를 창조한다는 점이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외형적으로 유럽 문화에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 문화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들 고유문화와 접합하여 새로운 매개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사례는 문학이나 예술 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의 삼바, 자메이카의 레게, 쿠바의 살사 등의 독특한 음악장르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역사·지리적 상황에서 창조된 대표적인 산물이다. 기본 장르인 흑인 노예의 음악과 율동에 포르투갈, 에스파냐, 미국의 음악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르가 발달하였다. 이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인종집단은 주변부에 거주하는 수동적인 문화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문화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낯선 문화, 낯선 사람 또는 이방인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낯선 자로서의 타자를 만날 때 내 속에 무의식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나와 타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성찰해야 한다. 동화주의적 사고방식은 타자를 자신과 같아야 하는 존재로 상정한다. 타 문화권에서 온 이주자에게 그들의 음식, 그들의 언어, 그들의 예절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우리의 음식, 언어, 예절만 강요하는 태도에는 이러한 동일성 논리가 깔려있다. 그러므로 먼저 동일성 논리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청산하고 나와 다른 문화를 그것의 고유성 속에서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순환성’을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요약하고, 이러한 문화적 순환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12~13줄 (360~39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효(孝)는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효 문화가 특히 발달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와 같은 이념은 존재한다. 비록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효 문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에게도 효 문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효 문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 특히 발달한 게 사실이다. 잘 아는 대로 유교의 이념을 창시한 공자는 특별히 효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너희들은 집에서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이를 가까이 해야한다. 이것을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학문에 힘써야 한다.”는 말에 나타나듯이, 공자는 ‘인(仁)’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효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그의 사상을 받드는 제자들도 효의 이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였고, 나아가 국가가 이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효 문화는 더욱더 공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효도 사상이 많은 가정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치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효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적지 않은 노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노인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효도 사상은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인’과 ‘효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 수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은 효도는 완전히 일방적인 계임이다. 겉보기에는 따뜻한 정이 있고, 가정의 화목을 지탱해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처럼 보인다. 물론 한때는 가정의 따뜻함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기능의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다.

효도는 자식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드려야 하는 일방적 희생의 위험부담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도 자신의 처지에 걸 맞는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희생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효도는 그것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 적절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한책임론이다. 효도에 대한 생각과 수준이 서로 달라져 서로 사랑해야 할 두 세대는 오히려 갈등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한 부엌에 넣는 일은 일종의 문화적 가학행위다. 노인들도 노인들의 인생이 있다. 그들도 부부끼리 뽀뽀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맛있는 것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다. 그러나 효도가 이들의 마지막 인생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대를 모든 일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볍고 건강하게 마무리할 삶의 권리가 있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효도의 이름 아래 빚어지는 억지가 아니다. 노인과 자녀들 모두의 사랑이 상처를 입지 않을 균형 있는 제도다.

—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다]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공자의 나라, 유교의 본산 지인 중국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권익보장법’ 조항이다. 이른바 ‘효도법’의 일종이다. 법이 제정된 뒤 시행되어 이 법을 적용한 첫 판결까지 나왔는데, 뒤늦게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논쟁이 지금 중국사회를 달구고 있다. “얼마나 부모 공양 문제가 심각했으면 법으로 강제까지 하겠나?”는 지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가정 내부의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대론도, 또 “객지에서 돈벌이 하느라 바쁜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나?”라는 자식들의 볼멘소리에 “바빠서 못 온다는데 또 설령 오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해 달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나?”는 부모들의 목소리까지 다

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뜨거운 찬반의 논란 속에 장쭈성 우시의 인민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77세 노모가 지난 해 8월부터 문안을 오지 않는 딸과 사위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또 춘제 등 1년에 5차례의 명절 가운데 두 차례 이상 문안을 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딸과 사위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모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SBS 월드 리포트, 2013년 7월 3일자

문제 3

제시문 [가]에 나타난 ‘효의 보편성’ 주장에 비추어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 혹은 사건을 초래한 사회적 변화 요인을 3가지 이상 들어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서 주장하는 사랑과 효의 조화로운 관계 정립에 대해 논술하시오.

16~17줄 (480~510자) [30점]

문제 4

도덕과 법의 관계에 비추어 제시문 [다]의 사건이 가지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6~7줄 (180~210자) [15점]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Ⅱ)

출제의도

문제 1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국제법상으로 불법임을 주어진 제시문을 잘 분석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제시문이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그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또 주어진 제시문을 모두 이용하여 문제 해결의 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독도의 영유권 논쟁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없어도,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논리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 2

본 문제는 국제화 시대 속에서 점차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민족 중심적인 분위기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파악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이 통용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가치관/세계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했다.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나는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문화적 선순환이 '창조적인 문화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서 노출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즉 다양성, 고유성, 민족주의, 동화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3

최근 존속 살인을 비롯하여 끔찍한 가족 간의 불화를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들이 자주 목격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손상할 수 없는 보편적, 인륜적 규범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에 이 문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규범적인 측면을 요약해온 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양적 전통, 특히 유교적 근본주의가 정착되어 온 우리의 상황에서 효는 강력한 규제적 이념으로 규정, 실천되어왔다. 하지만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교적 규범으로서 효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는 전통적인 효의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변화된 시대대상에서 효를 둘러싼 쟁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와 일반적인 사랑 개념 사이의 관계를 통해 효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정립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제는 전통적 규범으로서 효의 지위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사회적 변화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효와 사랑 사이의 개념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관계 정립을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4

효라는 도덕적 규범을 법으로 강제할 때, 등장하는 문제점을 시사적인 사례로부터 지적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도덕과 법 사이의 관계, 즉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학습하였다는 가정에서, 현실적인 사건에 이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도덕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양상은 한편으로 사회적 균열상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 법의 적용에서 있을 수 있는 법적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느냐가 평가에서 주안점이다.

문제해설

문제 1

제시문 [가]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내각결정문의 요지이다. 제시문 [마]는 국제법상 '점령(occupation)'이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마]로 볼 때 1905년 일본이 국제법상 독도가 원래 무주지였고, 1903년 이래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점령'이라는 영토 권원에 기초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시마네현이 울릉도와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의 영토인가에 대해 내무성에 질의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1877년 태정관의 지령을 소개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대한제국이 1900년 울릉도를 군으로 행정개편하고, 그 행정구역으로 독도를 관할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대한제국의 칙령을 소개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1906년 일본 관인(공무원)이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 울릉군수가 독도는 울릉군 소속인데 일본 관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보고하자 이에 대해 참정대신 박제순이 독도의 일본 영토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한 행정문서를 소개한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는 문화교류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그 예로서 서구와 일본의 예술 장르(회화, 음악)간의 '문화 순환성'을 제시했다. 제시문 [나]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로 동화·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외래문화와 고유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매개문화를 창조한다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혼종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보여주는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이념 등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선순환은 편협한 배타주의적 태도가 아닌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조화로운 공생사회를 열어갈 수 있다는 열린 타자 의식을 바탕에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열린 세계관은 제시문 [다]에서 노출되는 문제점, 즉 최근 우리 사회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동 과정에서 보여주는 국가간, 민족간, 인종간, 종교간,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다양성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3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효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가정 규범으로서 효가 특히 유교 전통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윤리적 규범을 넘어 국가의 통치이념으로까지 정립되어 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그러한 유교적 윤리 규범으로서 효가 우리나라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왔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사회규범으로서 불합리성과 변화된 시대에서의 부적합한 측면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처음 등장했던 20여년 전만하여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낳았을 정도로 극단적인 입장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상에 비추어 한 번쯤 고민해야 할 내용을 적지 않게 담고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 혹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사랑과 효를 다시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족 간의 합리적인 관계정립에 입각하여 무한책임 내지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성립되는 효를 지양하여 독립된 인간으로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합리적 사랑을 고민하는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시문 [다]는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불효에 대한 법적 강제 조치 기사들이다. 이 제시문은 제시문 [가]와 [나]의 미묘한 대립을 놓고 있는 사회적 실례로서 제시된 글이다. 문제에서는 일단 규범으로서 효가 위기에 처하도록 한 사회적 변화 요인을 정리하게 하고 제시문 [나]에서 제기하는 사랑과 효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비판적으로 논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4

제시문 [다]에 나타난 시사적인 사건을 널리 알려진 법과 도덕이라는 규범적 차이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문 [다]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법적 강제가 개입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법과 도덕의 차이점 및 공통의 연원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우수답안 작성요령

문제 1

우수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편입 주장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주어진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구성,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용어로서 점령, 태정관의 보고, 내각결정문, 조선의 시원적 영토 권원, 실효 지배, 울릉군 소속 등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요구 논제에 맞는 답안이 될 것이다. 적절한 답안을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내각결정문을 보면, 국제법상 '점령'에 근거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독도에 다른 나라가 점령한 형적이 없다는 것은 독도가 무주지라는 주장이고, 나카이가 1903년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렸고, 그 근거로 1692년 조선과의 영토분쟁에 관한 문서가 거론되고 있어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시원적 영유권을 갖고 있었음을 일본도 알고 있었다. 더욱이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행정개편하고 그 구역으로 독도를 관할케 하였고, 1906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울릉군수에게 통보하였을 때도, 울릉군수 심흥택이 독도를 울릉군 소속으로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조선이 울릉군 소속의 구역으로 실효 지배하고 있었던 영토임을 알 수 있다. 즉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전에 이미 조선이 독도에 대한 시원적 영토 권원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효적 지배는 국가의 권력 행사가 핵심이고, 국가의 행위는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실효적 지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2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우수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민족 중심적 사고가 도리어 다문화 사회에서 보다 더 요구되는 다양성과 보편성을 도리어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가 선순환하여 창조적인 문화 생산으로 진행되어야 이상적인 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문장 중에 동화주의, 혼종성, 선순환, 민족중심주의, 배타주의, 열린 세계관, 매개문화, 고유문화등의 핵심용어를 포함하여 서술하는 것도 유념해야 할 일이다. 우수답안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다]의 타자의식은 타 문화권에 대한 동일성 혹은 동화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형태의 열린 세계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가]는 서구와 일본 간에 이루어진 예술 문화의 순환, 제시문 [나]는 고유문화와 접촉하여 새로운 매개문화를 창조하는 라틴아메리카의 혼종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서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고흐 등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인상파 화가들과 일본의 목판 인쇄술의 상호교류, 다케미쓰 도루와 존 케이지, 푸치니 등의 상호교류를 들 수 있다.

문화적 선순환은 여전히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점차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문화 다원주의, 다양성과 고유성, 인권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혈통/민족 중심의 배타적 태도, 동화주의(동일성)의 사고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경계를 넘어선 문화적 선순환과 타문화를 배려하는 타자의식은 '창조적인 문화 생산자' 역할은 물론, 배타주의와 혈통/민족 중심의 사회가 안고 있는 인종/종교/계층/지역/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 3

현대사회에서 효의 의미를 성찰토록 하는 질문으로 전통사회의 효, 현대사회의 효 사이에 가로놓인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타당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이해하고 변화된 시대 속에서 효를 둘러싼 쟁점을 파악하여 현대적 관점으로 효를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핵심용어로서 효 이념, 도덕적 규범, 물신주의, 개인주의, 핵 가족화, 서구적 가치, 자본주의 복지시스템 등 핵심용어를 포함한 기술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우수답안의 한 가지 사례에 속한다.

제시문 [가]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효는 동서양과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속성을 가진 도덕적 규범이다. 물론 유교적 생활윤리가 지배적인 동아시아에서 효는 가치에 있어서나 실천차임으로서 더욱 강고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 이념에 대한 회의가 등장하고, 변화된 시대상에는 알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의 주장은 효 이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제시문 [다]는 효의 실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변화된 사회적 요인으로는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경시 풍조가 있다. 이는 특히 경제적 욕망 내지 물신주의 경향으로 인해 더욱더 가속되고 있다. 둘째,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이 과거보다 느슨해짐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실천되는 효의 가치가 퇴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서구적 가치가 유입되고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개인적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풍조를 낳게 했다. 넷째, 부모에 대한 봉양 혹은 보호 의무는 전통적으로 자식의 의무로 간주되었지만, 공적인 복지 시스템의 도입은 노인들에 대한 보호 책무를 국가 및 공공 부문으로 이전시켰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공적 시스템을 매개로 재정립되었고, 공적 서비스를 통한 물질적 관계로 변질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무론적 윤리적 규범으로 간주되어왔던 효의 가치를 변화된 시대상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문 [나]의 핵심적인 화제이다. 필자에 따르면 효는 전통적인 사회적 삶,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무한책임에 근거를 둔 순수 이념적 규범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식의 경제적 능력이나 생활근거지의 불일치 등과 같은 현대적 삶의 다양한 변화를 초월하여 효 이념이 여전히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표명하고 있다. 이제 효도 행위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 고유의 삶을 방해하기조차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윤리적 규범으로서 효 이념을 인간 고유의 보편적 가치인 사랑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서로 방해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규범의 정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효의 의무론적 계율이 역사가 되고 서로에게 짐이 된다면, 각 세대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는 모든 세대 구성원들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인간적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으로 재정립되어야만 한다.

문제 4

도덕적 규범 안에서 이해해온 효를 법으로 강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문제로서 서술 문장에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강제력, 사회적 균열, 공적 권위, 법의 안정성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도덕과 법의 관계, 즉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효의 문제와 연관시켜 기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문제에 법을 개입시킴으로써 초래되는 균열상과 효에 대한 법의 적용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수답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보고하고 있는 사건은 사실상 극단적인 사례로 간주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도덕과 법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강제성 여부와 그러한 규범이 작동되는 영역의 차이, 즉 공적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이냐의 차이이다. 불효를 처벌한다는 것은 가정 내 사안에 대해 공적인 강제력의 대표적인 도구인 법이 개입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사회적 균열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정 내 사안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법이 일관성 있고 공적 권위를 잃지 않을 정도로 실효성 있게 적용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율적이고 사적인 영역인 가정의 고유성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법의 안정성 내지 권위도 손상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4

동국대학교 논술, 이렇게 대비하라!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교사 원치승

1. 2016년 대입 논술고사의 특징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입 논술고사는 2014학년도 교육부의 '고교 교육 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교과서와 EBS교재 등)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수험생이 염두해야 할 각 대학 논술문제 출제 시의 핵심 고려 사항은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논술 주제의 연관성 그리고 쉬운 제시문으로 수험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 변별성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4, 2015, 2016학년도에 실시된 각 대학별 모의논술과 수시 논술 출제 유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 각 대학별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 및 평가 목표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2013학년도 논술고사 평가기준(이해력·분석력 20점, 논증력 30점, 창의력 40점, 표현력 10점)은 여러모로 타 대학의 논술고사 우수답안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주요 상위권 대학의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 및 평가 목표 또한 이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와 요약을 요구하는 문항, 제시문을 활용한 추론능력과 문제 해결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여러 영역의 지식을 통합, 비판적 사고능력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문에 근거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답안 작성,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 제시문의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 차별성 있는 논거와 참신한 사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텍스트 분석력,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평가,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해결 능력 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서강대학교는 제시문 읽기를 통한 문제 발견 및 해석 능력, 문제와 관련한 의견의 조정 및 추론능력,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및 기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문제적 상황에 대한 창조적 대안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동국대학교 인문계 논술의 특징

각 대학들이 기 출제된 논술 유형을 최대한 유지하듯이 동국대도 마찬가지이다.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독해 능력, 제시문 분석과 핵심어 선정 능력 그리고 주장과 논거 설정 능력과 논제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견해 표현 능력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유형을 지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러한 출제 유형은 타 대학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요 상위권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과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통합 논술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논술고사의 평가 목표와 출제 유형이 유사하다는 것은 동국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주요 상위권 대학 논술고사를 대비함에 있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수험생들은 대입 논술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2015, 2016학년도 동국대 수시 '인문계 I' 논술문항을 비교하여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분류 기준으로 논제를 분석하여 동국대 논술고사 대비법을 제시한 사례이다.

논제 예시 1

동국대 2015학년도 인문 I

[문제 1] 제시문 [나]~[마]에 나타난 '눈물'이나 '통곡'이 제시문 [가]의 '칠정(七情)' 중 어느 감정에서 표출되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동국대 2016학년도 인문 I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로 하여, '남녀 대화의 대표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어를 찾아 맥락상의 공통적인 주장을 기술하시오.

'복수제시문 요약형'으로 독해를 통해 제시문들의 요지를 밝히고(요약하기) 요지에 근거하여 이유를 서술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약하기의 네 가지, 선택, 일반화, 변화, 재구성의 원칙을 알고 이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

논제 예시 2

동국대 2015학년도 인문 I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의 위상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고, 제시문 [라], [마], [바]를 인용하여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성, 남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하시오.

'복수제시문 요약형'과 '기준제시 설명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시문에서 키워드와 핵심 문장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서로 다른 제시문 간의 관점을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입장 차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논증력을 키워야 한다.

논제 예시 3

동국대 2016학년도 인문 II

[문제 1] 제시문 [마]의 [자료 1]과 같이 갑국의 투표율 추이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제시문 [가]~[라]를 참고하여 갑국의 정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서술하시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라]의 조이혼율의 추이(推移)를 설명하시오.

기존에 동국대 논술에서 보이지 않았던 '자료 해석형' 논제로 제시문들의 핵심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해결을 위해서는 표나 그래프의 눈에 띄는 특징이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 등에 주목하여 분석하여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분석은 오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답안과 자신의 분석을 비교하면서 정답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대비방법

대교협에서 분류하는 논제의 유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대교협에서는 요약형 논제(단일제시문 요약형, 복수제시문 요약형), 평가형 논제(비판 옹호형, 기준제시 평가형), 설명형 논제(기준제시 설명형, 자료활용 설명형), 분석형 논제(비교분석형, 단순자료해석형, 상황해결형), 논술형 논제(대안제시형, 자유의견개진형)까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논제를 분류하고 있다. 논제를 이 분류에 의해서 분석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무엇을(what) 어떻게(how)하라'는 명확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조화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하면 정답을 몇 단락으로 써야하는지도 쉽게 파악된다는 장점이 있다.

기출문제를 통한 동국대 출제유형을 학습하라.

각 대학들은 논술 가이드북과 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제공된 출제 방향을 최대한 유지한다. 동국대도 다르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출제 되었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평가기준을 제대로 하여 문제해설, 예시답안을 자신이 작성한 답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과서(탐구활동과 읽기 자료 포함)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한 논술 학습을 해야 한다.

2017학년도 논술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논술 시험'이다. 중앙대는 2016학년도 논술자료 집에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한 수험생들이 접했던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교과서와 EBS 교재의 지문을 100% 사용한다."라고 확실 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앙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동일하다. 더하여 동국대 논술 준비의 중요한 Tip은 교과서의 탐 구활동과 읽기 자료를 잘 챙겨 읽어야한다는 것이다. 성균관대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교과 의 교과서들은 본문 외에 탐구 활동 또는 읽기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에 관한 심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많은 경우 본문의 주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 또는 본문 주제에 관한 심화 읽기 자료입니다. 그런 데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다시쓰기를 하라.

작문의 고쳐쓰기 과정과 유사한 다시쓰기는 글을 고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글쓰기 방법론이다. 자신의 글쓰기 방식 을 알아서 다시 글을 쓸 때 수정하거나 장점을 키워갈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면 간결한 문장쓰기를 자연 스럽게 익힐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단락에서 중요한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을 위계에 따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더하여 글 전체의 주제를 초점화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결국 자신의 글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함 으로서 자신의 사고과정이 논리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5

논술전형 Q & A

Q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교과) 성적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A

올해 우리대학 논술우수자 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논술 60%, 학생부(교과) 40%입니다. 이 중 학생부(교과)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문계, 자연계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반영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며, 고교 1~3학년 해당 교과목 전체 중 상위 10개 과목만을 선별하여 반영합니다. 이 때, 학년별 반영 비율의 차이는 없으며 교과별 이수단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인문 I, 인문 II 논술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인문계 논술은 고사 당일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고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고사시간의 차이 때문에 인문 I (오전), 인문 II (오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인문 I, 인문 II는 서로 동일한 유형의 논술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 인문계 논술을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인문 I, 인문 II 기출문제를 모두 참고하여 준비하기를 권장합니다.

Q

논술 문제 출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출제위원장 1명, 문제유형별(인문 I, 인문 II, 자연) 각 3명의 출제위원과 계열별 1~2명의 문제검토위원이 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통제된 상태로 출제가 진행됩니다. 이 때, 문제검토위원은 현직 고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모든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제를 위한 참고자료로 고등학교 교과서 및 EBS 교재가 주어지는데, 출제를 시작하기 전 출제위원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 참고서 내용을 철저히 연구 및 검토하며, 특정 교과영역의 단순 암기위주식 지식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고 응용하기에 적합한 제시문을 선별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합니다.



논술 답안 채점 시 평가 주안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논술 답안을 채점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지문과 주제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이는 답안에 작성되어야 하는 핵심어(키워드)의 유무를 보면 수험생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능력(비교·분석력, 추리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답안의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많이 충족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 등급은 나뉘게 됩니다.



논술 답안 채점 시 글씨체, 맞춤법도 채점에 영향을 미치나요?



채점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해당 답안의 내용입니다. 즉, 글씨체가 예쁘지 않거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작성한 답안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우수한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채점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글씨체 또는 맞춤법 오류는 채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논술전형 준비기간 동안 평소에 잘 훈련해 두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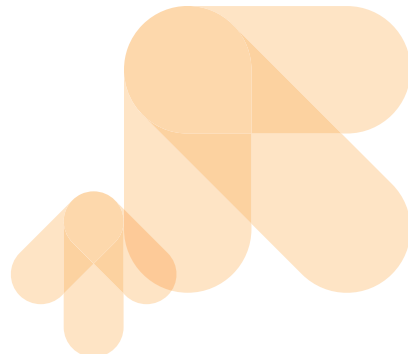


논술전형 대비를 위해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우리대학 논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문계 수험생은 교과서 내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소 비판적 사고능력을 통해서 여러 영역의 지식을 통합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기 바라며, 자연계 수험생은 수학, 화학, 생명과학, 물리 교과서에 빈출하는 원리를 실생활의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배양한다면 논술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답안지는 논술가이드북을 위해 제작된 연습용 답안지입니다. 2. 각 문제의 답안은 표시된 문제 번호에 맞춰 작성하십시오. 3.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정해진 분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4.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십시오(연필 사용 가능). 5. 답안 수정 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십시오(수정 테이프 또는 연필지우개 사용 가능). 6.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개인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불필요한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합니다.
------	---

[illegible][illegible]

칸 박 또는 줄 아래에 답안을 작성하지 마시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graph paper. It features a uniform grid of small squares. On the right edge, there is a vertical axis with numerical labels starting at 0 and increasing by 60 up to 780. The rest of the page is a continuous grid without any other markings or text.

칸 밖 또는 줄 아래에 답안을 작성하지 마시오.

동국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 ③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이용 ③ ④ 3호선 4호선 충무로역 1번출구 이용

버스 이용시

-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 7011 간선버스 : 104, 105, 140, 463, 421, 507, 604
-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 7212 간선버스 : 144, 301, 420, 407

자가용 이용시

- 분당방면 : 한남대교 → 남산국립극장 4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강남방면 : 동호대교 →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3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용산방면 : 남산2호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동대문방면 : 장충사거리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우리대학 입학처 방문 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동대입구역 방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각종 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는 안내된 고사장과 가까운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